

바로미와 함께하는

좌충우돌 재판이야기

6

글 • 서울교육대학교 법과인권교육연구소
그림 • 극동만화연구소

대법원 · 사법발전재단

“책을 펴내며”

요즘은 가상공간에 글을 쓰는 것이 매우 쉽습니다. 휴대전화나 태블릿 PC, 노트북 등을 이용하여 누구나 인터넷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가상게시판에 글이 넘쳐나고 댓글도 많이 달립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쓴 글에 누군가가 욕설 또는 나쁜 의미의 댓글을 올린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이 책에는 나리의 사촌 언니인 유명 연예인이 악성 댓글로 힘들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악성 댓글은 연예인이나 유명인만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구들처럼 평범한 사람들도 가상공간에서 욕설이나 비방, 악성 댓글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억울하고 참아내기 힘든 일을 겪게 되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법원과 재판을 나와 상관없는 먼 나라 이야기로만 느끼나요? 하지만 법원과 재판의 내용 중에는 어린이와 관련된 것도 많습니다. 어린이를 보호하고 정당한 권리를 누리게 하며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 또한 법과 재판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바로미와 함께하는 좌충우돌 재판이야기 1~4권에서 법원의 재판을 다양하게 경험해 보았어요. 이제 여러분은 좌충우돌 재판이야기 5, 6권을 통해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을 만나게 될 거예요. 왜 대법원일까요? 우리나라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많게는 세 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 대법원은 마지막 재판을 통해 분쟁을 마무리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에서 내려진 판결의 모범답안이라 할 수 있는 대법원 판례를 알아보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규범과 변화하는 사회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길라잡이가 됩니다.

5, 6권에서는 똘이 할아버지가 햇볕을 쬘 권리를 되찾는 과정, 케이팝(K-POP) 스타를 꿈꾸는 친구들이 노래교실에서 겪은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 나리의 사촌 언니가 악성 댓글에 대처하는 자세, 눈이 쌓인 고속도로에 갇힌 사람들이 소송을 통해 권리를 회복하는 이야기, 유나의 진정한 가족 찾기, 학원에서 쉬는 시간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발생한 사고, 나리 엄마의 종중 입성기 등 대법원 판례가 다룬 많은 사건 이야기들이 책 속에서 쉽고 재미있게 펼쳐집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대법원을 견학하는 장면을 통해 대법원의 모습도 함께 볼 수 있어요.

바로미와 함께하는 좌충우돌 재판이야기 1~4권에서 등장했던 우리의 친구 용감한 똘이와 지혜로운 나리, 그리고 정의를 수호하는 요정 바로미가 이번 5, 6권에서도 여러분들을 더욱 신나고 재미있는 이야기 속으로 안내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새롭게 펼쳐지는 법원과 재판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2024년 10월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등장인물 소개



바로미

정의를 수호하는 법의 요정.
뚤이와 나리에게 법과 재판에 대해 가르쳐주고
초능력을 사용하여 특별한 경험을 겪게 해준다.

한똘



덜렁대긴 하지만 정의롭고
용감한 소년. 장래에 훌륭한
판사가 되는 것이 꿈이다.

신나리



똑똑하고 어여쁜 뚤이의 여자친구.
침착하고 이성적이지만 뚤이와
둘이 있으면 닭살 커플이 된다.

유나



뚤이와 나리의 같은 반 친구.
다정한 아버지를 따르는 예쁘고 새침한 소녀
지만 친구들에게 숨기고 있는 비밀이 있어서
잘 어울리지 못한다.


나급행
성급한 성격의
운전자 아저씨
유태만
똘이와 나리가 다니는
피아노미술학원의 원장님
천지축
천방지축 장난꾸러기 소년.
초등학교 1학년으로 똘이와 같은 초등학교,
학원을 다닌다.
나리의
큰외할아버지
유서깊은 용맹 이씨 사도공파의 종손.
가문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시고 전통을 지키려
애쓰지만, 남녀차별의식을 가지고 계시다.

글 싣는 순서





제5화
고속도로에 갇히다 ····· 8

제6화
내 이름은 정유나 ····· 46

제7화
천방지축 천지축 ····· 100

제8화
용맹한 용맹 이씨의 딸 ····· 150

제 5화

고속도로에 갇히다






저도 만약을 위해 핫팩이랑 담요, 비상약품, 보온병 등 이것저것 잔뜩 챙겼답니당.
으이구, 피난 가니?
그럼 이제 출발할게요. 눈이 쌓이기 전에 빨리 가야겠어요.
신나게 놀고 올게요.
너희 엄마도 같이 가시면 좋을텐데…
괜찮겠죠?
나리 엄마가 알아서 잘하시겠지. 걱정 마.
호~
눈이 와서 톨게이트가 꽤 붐비는구나.


고속도로에 들어왔는데도 차들이 모두 거북이 걸음이네.
눈송이도 점점 굵어지고… 흠…
그게 뭐가 걱정이에요. 눈이 많이 오면 눈사람도 만들고 눈싸움도 하고 좋죠, 뭐.
스키도 잘 미끄러지겠어요.
그래, 스키 타기엔 딱 좋은 날씨이긴 하구나.
그보다 배 안 고프세요? 김밥, 과자, 쥐포, 단팥빵, 초콜릿이 있는데 뭐 드시겠어요?
음… 촤컬릿!
뒤적 뒤적
나도
지금 ◇◇고속도로 ○○구간에 예상보다 훨씬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구간
2km 전방 오르막 구간에는
20톤 트럭이 도로에 쌓인
눈 때문에 미끄러져
뒤따르던 트레일러와
부딪히는 사고까지
났다고 합니다.
우리 앞 지점에서
사고가 났구나.
다친 사람은 없대요?
응, 그나마
없다는구나.
하지만...
안 그래도 눈이 많이 내리는데
사고 때문에 더 길이 막히겠어.
우
걱
우
걱
경찰 아저씨들이나
도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곧 정리하시겠죠.
걱정 마세요.
그보다 또
뭘 드시겠어요?
똘아, 넌
먹으러 왔니?
어머, 바로미
언제 왔어?


3시간 후
맙소사! 이젠 차들이 옴짝달싹도 안 하는걸.
예정대로라면 지금쯤 스키장에 도착해서 짐 풀고 준비운동까지 끝냈을텐데…
끄응.
얘들아! 아까부터 다들 새파랗게 질려서 왜 이리 조용해? 어디 아파?
끄으으응.
얘들아! 너희들 얼굴을 보니 때가 된 것 같구나.
아~ 공중도덕을 철저히 지키며 올바르게 살고자 했는데…
나리야, 미안해. 다 나 때문이야.


아줌마는 아직 괜찮아. 너희들이 먼저 갔다 오너라.
휘잉
크흑!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으악! 응가가 새려 한다!
바로미, 절대 따라오면 안 돼!
아, 화장실 문제였구나. 이것저것 잔뜩 먹더니…
그럼 난 길이 얼마나 막혔는지 보러 가야겠군.
휘익
뜨헉!


바로미!
나 휴지를 깜빡했어!
도와줘!
바로미, 어딜 간거야?
허흐흑. 엉덩이에
동상 걸릴 것 같아.
……
애야, 내가
바로미는 아니지만,
휴지 좀 빌려줄까?
네! 누구신지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그래. 아직
대한민국 사회에는
정이 살아있어.
무지 부끄럽긴
하지만...
물티슈도 줄 테니,
손도 닦거라.
할아버진
제 은인이세요.
하하, 휴지
한 장으로
은인까지야.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 건 처음 봐요.
나도 이 지역에서 50년 넘게 살았지만, 이 정도 눈은 처음 본다.
눈은 그칠 기미가 안 보이고 기름이 떨어질까 봐 걱정이구나.
혹시나 해서 난방을 꺼두긴 했는데…
죄송합니다. 도로가 막혀서 자재를 출항시간까지 도착시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에엥!! 집에 갈 거야!
차 안에 오래 있었더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미안해. 내일이 결혼식인데…
…응, 알아. 내가 신랑이지. 미안해.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하네.
내 차는 여기란다. 네 차는 찾을 수 있겠니?
네, 바로 옆이에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속도로에서 폭설에 사고까지 겹쳐 현재 많은 차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로공사에서는 오늘 오후 4시까지는 막힌 구간이 뚫릴 수 있다고 하니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오후 4시? 한참이나 남았잖아.
그래도 다행이야. 저녁은 제대로 먹을 수 있겠어.
스윽
글쎄, 내 생각엔 좀 더 오래 걸릴 것 같아.


근처를 돌아봤는데 앞뒤로 20km는 넘게 꽉꽉 막혀 있었어.
제설차도 못 들어오고 있고 몇 시간 전에 사고가 났던 트럭도 아직 못 치웠더라고...
게다가 고속도로에 차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길이 막히는 구간이 늘어나는 중이었어.
뭐라고?
아으으 춥구나, 추워!
언제까지 길이 이렇게 막히려는지...
탁
엄마, 우리 계속 못 나갈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니?
바로미, 아니 인터넷에서 그러는데 고속도로에 차들이 계속 들어와서 도로가 점점 더 막혀간대요.


아니, 도로가 이 지경이 됐는데 도로공사는 뭘 하고 있는 거람?
도로공사에 건의해야겠어. 어떻게든 대처를 하라고!
바로미, 도로공사가 뭐 하는 곳이야?
고속도로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공기업이야.
폭설이나 폭우, 짙은 안개 등으로 고속도로가 막히는 상황이 예상되면 도로공사에서는 거기에 맞는
진입 통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재빨리 대처작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어.
네?
눈이 많이 오는 걸 저희가 어쩌겠어요?
기다려 보세요. 곧 도로사정이 나아질 거예요.
아직 아무런 대책도 없다고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오래 갇혀 있는지 알아요?


지금 한가하게 무슨 소리에요? 고속도로 진입을 통제하든,
중앙분리대를 제거해서 반대차선을 개방하든 당장 좀 움직이시라구요.
죄송합니다. 아직 지시가 내려오지 않아서요.
그냥 좀 더 기다려 주세요.
…
아니! 도로에 갇혀 있는 사람이 수천 명인데
도로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거람?! 답답해!
미안하다. 얘들아, 내가 잠시 이성을 잃었구나.
도로공사 측에서 곧 조치를 취하겠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구나.
벨 렐 레~
벨 렐 렐 레~


한똘~ 우리 아들
이게 무슨 난리라니?
춥지? 무섭진 않니?
배는 안 고파?
전 괜찮아요.
먹을 것을 넉넉히 싸 온
덕분에 배고프지 않구요.
담요도 덮고 있어요.
…
그래, 네가 짐을
엄청 많이 싸간 것이
신의 한 수였구나.
히힛! 제가
선견지명이
좀 있지요.
?
도로공사에서 톨게이트를
차단해 교통 통제도 하고
제설장비를 총동원해 눈을 치우고
있대. 8시쯤엔 길이 뚫린다니
조금만 더 기다리렴.
이제 와서
대처를 하다니...
너무 늦었잖아.
전 완~~전 괜찮으니
걱정말고 쉬세요.
배터리 다 되어가니
이만 끊을게요.
갑갑해 죽겠어.
효자 한똘
어머니 앞에서
괜찮은 척 하느라
애썼다.


미안하다. 똘아, 아줌마가 괜히 너까지 데려와서 이런 생고생을 시키는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길이 막히는 것이 아줌마 탓도 아닌데…
맞아요. 탓하려면 끝없이 눈을 뿌리는 하늘 탓을 하든가.
늑장 대처를 한 도로공사 탓을 해야죠.
그래, 눈도 눈이지만 도로공사 측에서 신속히 대처했다면 이렇게 길이 막히진 않았겠지.
!
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오히려 다행으로 느껴져요.
아니, 왜?
제가 없었으면 아줌마와 나리 단둘이 이곳에 갇혀 있었을 거잖아요.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낫죠.


맞아, 똘이 덕분에 너무 든든해.
나, 나리야. 왜 내가 아니라 내 가방을 보고 말하는 거야?
숙숙
호호, 정말 똘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 뭐니? 내내 굶고 있었을 거야.
게다가 기름을 아끼려 난방을 아껴 틀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무지 따뜻하단 말이야. 기름도 천천히 닳는 느낌이고…
나리 어머니, 그건 제 마법의 힘 때문이걸랑요.
우린 바로미도 있고 해서 괜찮지만 다른 차의 사람들은 정말 힘들겠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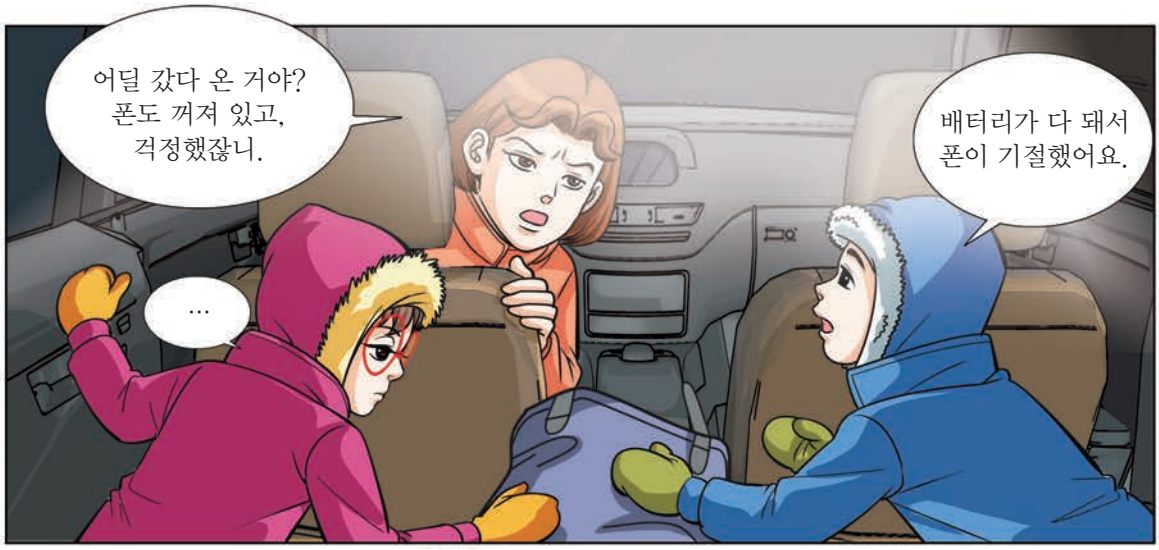

아줌마, 저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똘아, 뭐야? 어디 가는데 가방을 가져가?
똘아?
추워, 차 안에서 잠시만 기다려.
눈은 그쳤는데, 할멈 괜찮아?
춥고 배고프고 온몸이 아픈 것만 빼면 괜찮아요.
점점 더 추워질테니 손가락이 얼기 전에 유언장이라도 써두어야 겠어요.
쯧쯧, 그런가.
영감, 난 다음 세상에서 아프리카에서 태어날테니 영감은 북극으로 가시오. 얼굴 보지 맙시다.
무슨 농담을 그리 진지하게 해?
농담 아니에요.
아니?
퉁 퉁 퉁


따뜻한 보리차와 김밥 배달입니다.
아! 핫팩도 있어요♡
아니, 이게 다 어디서 난 게야?
제가 좀 넉넉하게 챙겼었거든요.
쪼르륵~
세상에… 너무 고맙구나.
아, 이제야 살 것 같아.
헤헤, 뭘요? 문 닫을게요.
탁
아~ 따뜻해. 영감, 난 다시 태어나도 영감이랑 살거라우.
허허.
차들이 너무 많아.


감기 걸리면 어쩌려구?
똘아, 거기서 뭐 해?
바로미, 부탁이야. 네 힘을 빌려줘. 다른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돕고 싶어.
바로미의 마법으로 똘이의 가방에서 음식과 보온병이 끝없이 나오기 시작했고...
따뜻한 물과 음식이에요. 보온병은 안 돌려주셔도 돼요.
오빠, 언니! 고맙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고마울수가...
형님! 그 꼬마들이 구세주네요.
난 굶어 죽는 줄 알았다. 많이 먹어라. 아우들아.
넵! 형님!
Thank you very much!
Oh thank you!


고맙다.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들이구나.
어서 들어가셔서 따뜻한 물이라도 드세요.
너무 배고파서 고양이 사료를 먹을 뻔 했단다.
정말 고마워.
헤헤, 뭘요.
나, 나리야. 왜 그래?
콜록~ 콜록~
추운 바깥에서 너무 오래 있었어. 그만하고 들어가.
난 괜찮아. 그냥 잠깐 어지러워서…
어라? 바로미 저거 뭐지?
내가 뭔지 확인하고 올게.
너희들은 차에 가. 나리가 위험해.


군인들이 구호식량을 나눠 주고 있잖아.
빵과 생수입니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지금 사고처리와 제설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게 이젠 너무 무서워요.
언제까지 여기에 갇혀 있어야 하나요?
아! 그게…
도, 도로공사에서 오늘 밤 11시쯤에는 길이 뚫릴 것이라고 발표를…
그놈의 길 뚫린다는 이야기는 아침부터 들었거든요?
죄, 죄송합니다.
어머, 저야말로 죄송해요. 수고하시는데…
너희들은 이제 들어가도 될 것 같아.


어딜 갔다 온 거야?
폰도 꺼져 있고,
걱정했잖니.
…
배터리가 다 돼서
폰이 기절했어요.


답답한 것 알겠지만,
온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으니 이젠 나가면
안 된다.
네…


피곤할 텐데
차라리 이만
자자꾸나.
잠에서 깨어나면
눈이 치워져
있겠지.
꾹


그날 밤, 1만여 대의 자동차가 고속도로에 갇혀 있었다.
추위와 배고픔에 지친 일부 시민들은 차를 버리고 걸어서 도로를 탈출하기도 했다.
언제 정상화가 될지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정 기상 특보입니다.
도로공사는 제설작업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춥다…


다녀왔어요.
엄마... 아빠...
오!
그래!
애들이 둘 다
감기 기운이 있어요.
26시간을
꼬박 차 안에 갇혀
있었으니...
이런!
얼굴이 반쪽이
되었구나!
고생하셨습니다.
나리는?
나리는 차 안에서
자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똘이까지
데려가서...
그런 말씀 마세요.
천재지변인데
어쩌겠어요.
천재지변이
아니에요!
네?
도로공사에서
조금만 더 빨리 대처를
했더라면 이렇게
오래 도로에 갇히진
않았을 거예요.
울화가 치미는데
이 답답함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어쨌든 좀 들어오세요.
아니에요. 나리가
차에 있어서...


이후 며칠 동안 뚤이와 나리는 심한 감기에 걸려 크게 앓았다.
푸엣취!
감기가 오래 가네. 내가 이만 낫게 해줄까?
고맙지만 괜찮아. 고속도로에서도 네게 큰 도움을 받았는걸.
그때 눈이 좀 많이 내린다 했더니 100년 만에 내린 폭설이었대. 49cm나 쌓였다고 하더라.
당분간 눈은 지긋지긋할 것 같아.
전화.
벨 렐 레 레~
앗! 티슈 빌려주신 할아버지다!
연락처는 언제 또 주고받았어?
전화연결중
06:30
46%
티슈할아버지
휴대전화 010 - 0000 - 0000


똘아! 빅뉴스다!
폭설이 내렸던 날 고속도로에 갇혔던 사람들이 모여 인터넷 카페를 개설했단다.
장시간 고속도로에 갇히면서 입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해 도로공사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할 거야.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소송을 한다고요?
그래도 돼요?
소송제도 중에 「공동소송」이라는 것이 있단다.
인터넷을 통해 당시 피해자들을 모아 함께 공동소송을 진행하려 해.
카페 주소를 알려줄 테니 일단 가입하고
자세한 건 부모님과 의논해 보거라.
네.
바로미, '공동소송'이 뭐야?
쉽게 말하면 소송 당사자가 여러 명인 소송이야.
SEARCH


원고가 여러 명인 경우도 있고, 피고가 여러 명인 경우도 있어.
저마다 각자 진행할 수도 있는 소송들을 하나의 절차에서 한꺼번에 진행하는 거야.
수백 명이 한꺼번에 소송도 할 수 있는 거구나.
재판 한 번 하려면 상당한 비용과 시간, 수고가 드는데
공동으로 하게 되면 여러모로 큰 절약이 되는 거지.
그런데 이미 보름도 넘게 지났는데 피해자들을 얼마나 모을 수 있을진 모르겠어.
그날, 물과 음식을 나눠드리며 몇몇 분께 명함을 받았었는데..
이 정도면 될까?
많다!
파다다닥
똘이와 나리는 폭설 피해자들의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였고...
...!!!


얼마 후 폭설 피해자들이 모여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을 도와드릴 변호사 김정희입니다. 자리가 협소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솔직히 변호사 수임료를 걱정했는데 공동소송 덕분에 부담을 덜었어.
변호사님, 잘 좀 부탁드립니다. 전 그날 무려 8시간을 갇혀 있었어요.
8시간요? 전 26시간 갇혀 있었어요.
전 32시간 갇혀 있다가 병원에 입원했었다고요.
…!
자~ 자~ 모두들 진정하세요. 여러분의 피해배상 요구는 정당한 것입니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를 적절히 유지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어요.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하고 고속도로 진입을 통제하고 일찍 중앙분리대를 개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했어요.







TIP 위자료

불법행위에 의해 생기는 손해 중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에 대한 배상금.

- 민법 제751조: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도로공사
당시 운전자들이 도로에 갇혀 피해를 입은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위자료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해요.
△△도로공사 대표
걱정 마십시오. 저희 로펌 측에서 서류를 검토해본 결과
당시 고속도로에는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촤라락
가능한 제설장비와 직원들을 총동원해 제설작업을 실시했고
도로를 차단하고 중앙분리대를 개방하는 등의 대처작업에도 최선을 다했어요.
제 생각엔 당시 도로에 있던 운전자들이
도로공사의 안내와 지시를 따르지 않은 탓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도로차단 안내방송을 무시하고 도로로 진입한 사람들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100년 만의 폭설이 아닙니까? 여러가지 사정과 천재지변에 의해 발생된 사고였습니다.
법원에서도 분명히 사실을 인정해 줄 것입니다.
도로에 차를 버려두고 떠난 운전자들도 많았거든요.
그, 그래야 겠지요.


얼마 후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과 △△도로공사 측 관계자들이 법정에서 만나게 된다.
자, 이제


선고하겠습니다.
...!!
피고: 도로공사
...!!
?
원고: ○○○외 243명
이번 폭설이 100년 만의 최대 적설량이긴 하나 당시 피고는
고립구간의 교통정체를 미리 예견하여 적절한 대비책을 세움으로써
고립구간의 교통 정체를 방지하거나 적어도 고립시간을 상당히 줄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원고들이 피고의 안내를 무시한 채 고립 구간에 새로 진입하거나 차량을 방치하고 떠났다는 점 역시

당시 고속도로의 관리책임이 있는 피고가 차량 진입 통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승소할 수도 있겠는데...

어쩌면...

?

아울러 장시간 고립상태에 있던 원고들이 추위와 배고픔으로 피해 차량을 방치하고 떠난 점 역시

극한의 고통과 위험을 피하기 위한 행동으로써 수긍할 만한 사정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피고는 도로의 설치, 관리상 잘못이 있으므로 고립사고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고립 피해자들에게 고립 시간별로 1인당 12시간 미만은 35만 원, 12~24시간은 40만 원,

24시간 이상은 50만 원으로 하되 여자와 70세 이상 고령자, 미성년자는 10만 원을 더해 지급하십시오.

!


눈 때문이라고
무조건 책임을 미루었는데
생각을 잘못한 것이었구나!
…
스윽
다행히 법원에서
여러분의 손을
들어주었군요.
아이구!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고석
피고석
나리야, 이긴 건 좋은데…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뭐?
액수가 좀
적은 것 같지 않아?
우리가 그때
얼마나 큰 고생을
했는데…
그렇지 않단다.
똘아.
아! 티슈
할아버지!
이 판결은 손해배상
액수가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야.
흩어져 있던 여러
피해자들이 뭉쳐 정당한
권리를 찾았다는 것에
의미가 있지 않겠니?


공공기관의 안일한 대응에 책임을 물었다는 것도 중요하지.
도로공사에도 따끔한 가르침이 되어 앞으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게 되지 않겠니?
...!
그렇군요. 알겠어요. 여러모로 뜻깊은 판결이군요.
맞아요.
마을공원
그래도 말이야.
뉴스에선 폭설에 갇혔던 피해자가 1만 9천 명에 달한다고 하더라구.
하지만 공동소송에 참여한 200여 명의 피해자들만 위자료를 받았지.
위자료를 못 받은 피해자들이 너무 많아.
하긴... 다른 피해자들도 위자료를 다 받으려면 번거롭지만, 소송을 또 해야 하는 거지?
응, 그렇지.


이런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집단소송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기는 해.
집단소송?
집단소송은 피해자들 중 일부가 대표가 되어 기업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제도야.
대표가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같은 효력을 미치게 돼.
하지만 판결의 영향력이 크고, 집단의 대표가 가지는 부담이 커서
우리나라에선 금융분야에서만 제한적으로 집단소송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쉬이익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서 따져봐야 할 것도 많구나.


하긴, 고생은 많이 했지만, 폭설 덕분에 배운 점도 많았어. 그렇지, 나리야?
응, 언제 어디서나 준비가 철저해야 한다는 교훈도 얻었고.
하하하! 역시 내 가방이 짱이었지?
으쓱
으쓱
나는 눈을 무지 좋아했는데 그날 이후로
티끌만 날려도 무서워졌어.
정말?
정말, 정말!
그럼 이건 어때?
으아아


야! 바로미!
나리가 눈이 무섭다는데
눈을 뿌리면 어떡해!
똘아! 똘아!
자세히 봐!
꽃잎이야.
너무 예쁘다.
아~
정말이네.
어머!
너와 함께라면
평생 이곳에 갇혀
있어도 좋아.
진짜 눈으로
바꿔 버릴까?



제5화 심화학습

재판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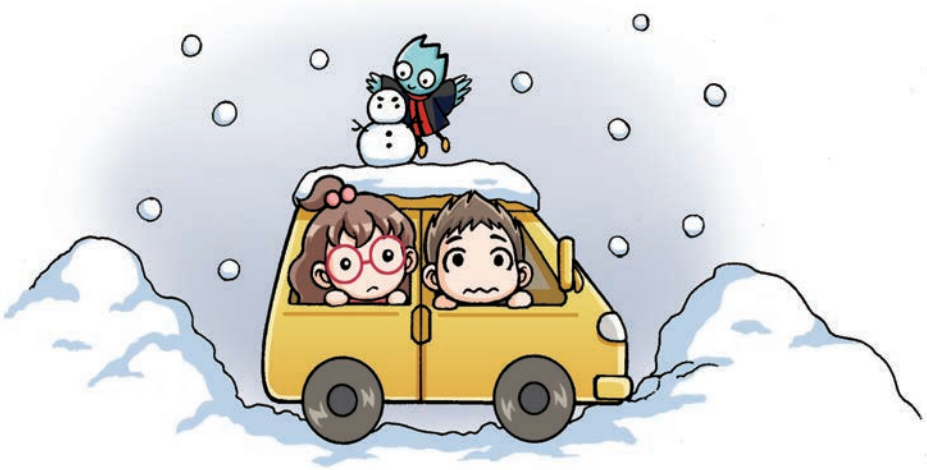
헌법 제27조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5화 "고속도로에 갇히다"의 이야기는 실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하고 있어요.

겨울에 영동고속도로에서 갑작스런 폭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고립되는 일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한국도로공사가 관리를 잘못한 책임이 있다고 법원에 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재판을 청구한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비록 100년 만에 눈이 가장 많이 내렸다고는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의 교통정체를 예상하고 적절한 준비를 하여 교통정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고립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 했다는 것이지요. 대법원은 한국도로공사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29287, 29294 판결]





재판청구권이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나 정부와 관련하여 법적인 다툼이 생겼을 때 법원에 그 판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이러한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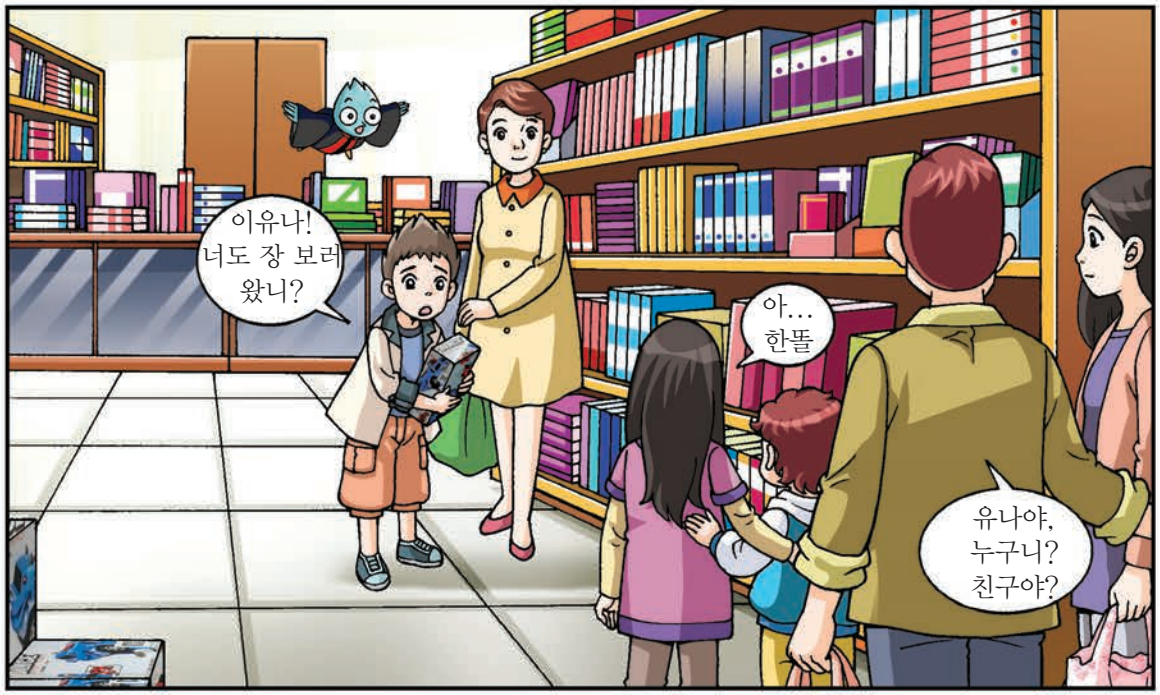
헌법이 보장하는 청구권에는 이러한 재판청구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배상 청구권, 손실보상 청구권,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형사보상 청구권, 청원권 등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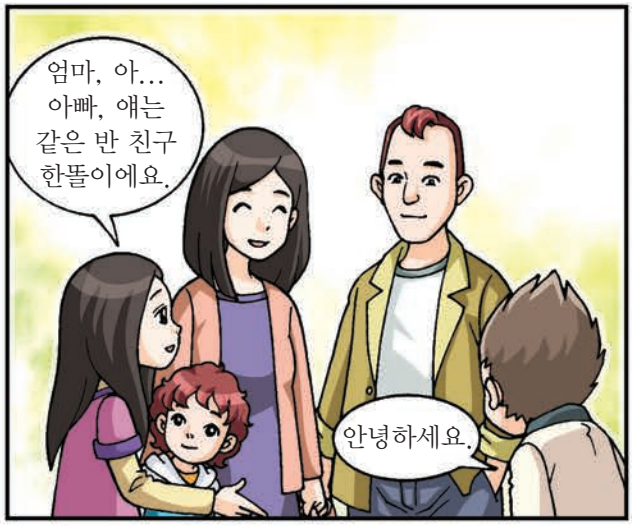
제6화

내 이름은 정유나


어머니, 이 무선 자동차 좀 보십시오. 헤드라이트도 반짝반짝 켜지고 360° 회전도 할 수 있고
흐음~
심지어는 앞바퀴를 들고 일어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똘아! 이 자동차는 더 멋져! 로봇으로 변신도 한대. 대~박!!


아들~ 노트 필요하지 않니? 몇 권 살까?
어머니, 무선 자동차
우리 똘이는 모범생이니 연습장도 필요하겠지?
무선 자동…
무선 자동차 사 주세요.
저, 장난감도 거의 없잖아요.
아니, 네 나이가 몇 살인데 장난감 타령이야!
얼른 안 내려놓을래?!
자~동~차~
이 꼴을 나리가 봐야 나리 눈에 콩깍지가 벗겨질 텐데…
POLICE
어라?


이유나! 너도 장 보러 왔니?
아… 한똘
유나야, 누구니? 친구야?


엄마, 아… 아빠, 얘는 같은 반 친구 한똘이에요.
안녕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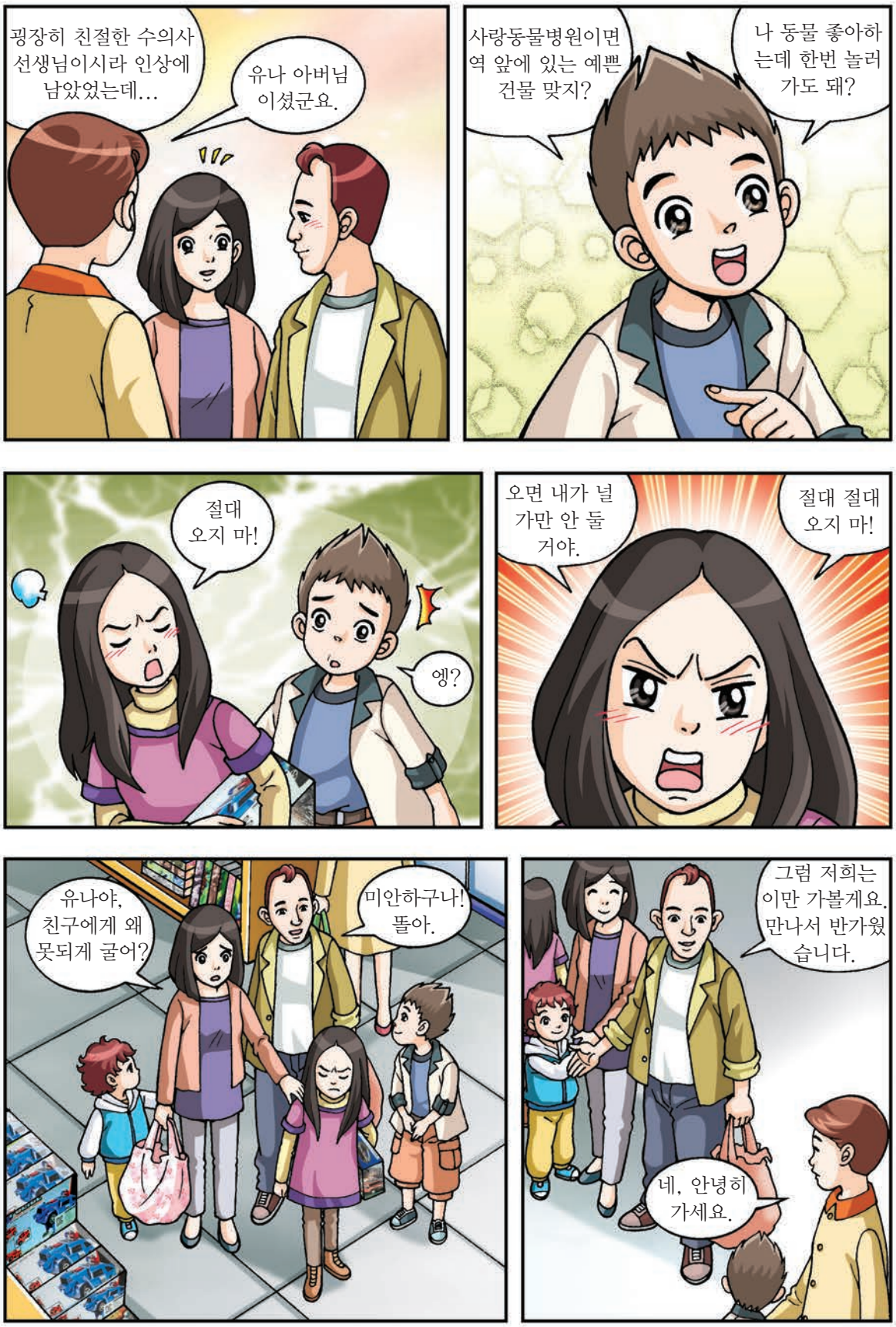

씩씩하게 생겼구나. 우리 유나와 친하게 지내다오.
어디서 본 얼굴인데… 어디지?
네.


호호. 안녕하세요. 전 똘이 엄마랍니다.
온 가족이 장을 보러 오셨나 봐요. 참 보기 좋네요.
하하. 모처럼 일요일이라며 유나에게 끌려왔어요.


뭐냐? 한똘~ 장난감 사달라고 조르며 울었냐?
안 울었거든?!
빰에 눈물 있는데?
헉!
거짓말이 지롱~
너!
똘아, 엄마가 좋게 말할 때 그거 갖다 놔라.
흑...
유나는 참 예쁘구나. 친구들에게 인기 많겠는걸?
감사합니다. 아줌마.
예쁘긴. 나리가 십만 배는 더 예쁘지.


화
어머, 이게 뭐야? 무선 자동차네.
내가 정말 갖고 싶어 했던 건데~
유나야, 아까는 인형이 갖고 싶다고 했잖아. 그건 너무 비싸 보이는데.
네, 그런데 지금은 무선 자동차가 갖고 싶어졌어요.
인형 대신 무선 자동차 사주시면 안 돼요?
흠, 장난감치고 멋지긴 하구나.
진호도 좋아할 거예요.
진호야, 너도 누나랑 같이 자동차 놀이 하고 싶지?
응! 응!


그래 좋다. 사자!
와~ 우리 아빠 최고!
POLICE
이럴 수가!!
유나 아빠를 어디서 봤더라 …
아! 유나 아버님 기억났어요!
네?
사랑동물병원 원장님이시죠?
네, 저희 동물 병원에 오신 적이 있으세요?
설마… 우리 가족의 비밀을 눈치채진 않겠지?
네, 애완동물은 안 키우지만 아는 사람을 따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친절한 수의사 선생님이시라 인상에 남았었는데…
유나 아버님 이셨군요.
사랑동물병원이면 역 앞에 있는 예쁜 건물 맞지?
나 동물 좋아하는데 한번 놀러 가도 돼?
절대 오지 마!
엥?
오면 내가 널 가만 안 둘 거야.
절대 절대 오지 마!
유나야, 친구에게 왜 못되게 굴어?
미안하구나! 똘아.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이상한 애네... 갑자기 왜 화를 내지?
뭔가 심각해 보였어. 나름 사정이 있는 게 아닐까?
얼른 노트 사고 가자.
자, 오늘은 진로수업을 하는 날이에요.
모둠별로 각자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그리고 자신의 꿈과 관계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만나 인터뷰해 오는 거예요.


그럼 각자 장래희망에 대해 얘기해 보자.
모두 모두 파이팅~


나는 나쁜 사람을 벌주고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검사가 되고 싶어.
용기와 결단력이 필요한 직업이라고 생각해.


난 배우가 되고 싶어. 신들린 듯한 연기력과 눈부신 미모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거야.


나는 수의사가 되고 싶어. 동물들을 무척 좋아하거든. 그래서 버려지거나 아픈 동물들을 돌보고 싶어.


다들 알지? 난 판사!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려 노력하고 있어.


그래서 노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취미생활도 다 나름 열심히 해.
매일 3㎞달리기, 정권 찌르기 100번, 발차기 100번을 하고 있고…
잘
잘
잘
저 정도면 운동선수가 되어 올림픽에 나가도 되겠다.
역대 최고의 몸짱 판사님이 되겠어.


흠! 그럼 누굴 인터뷰 하는 게 좋을까?
검사님!
배우!
판사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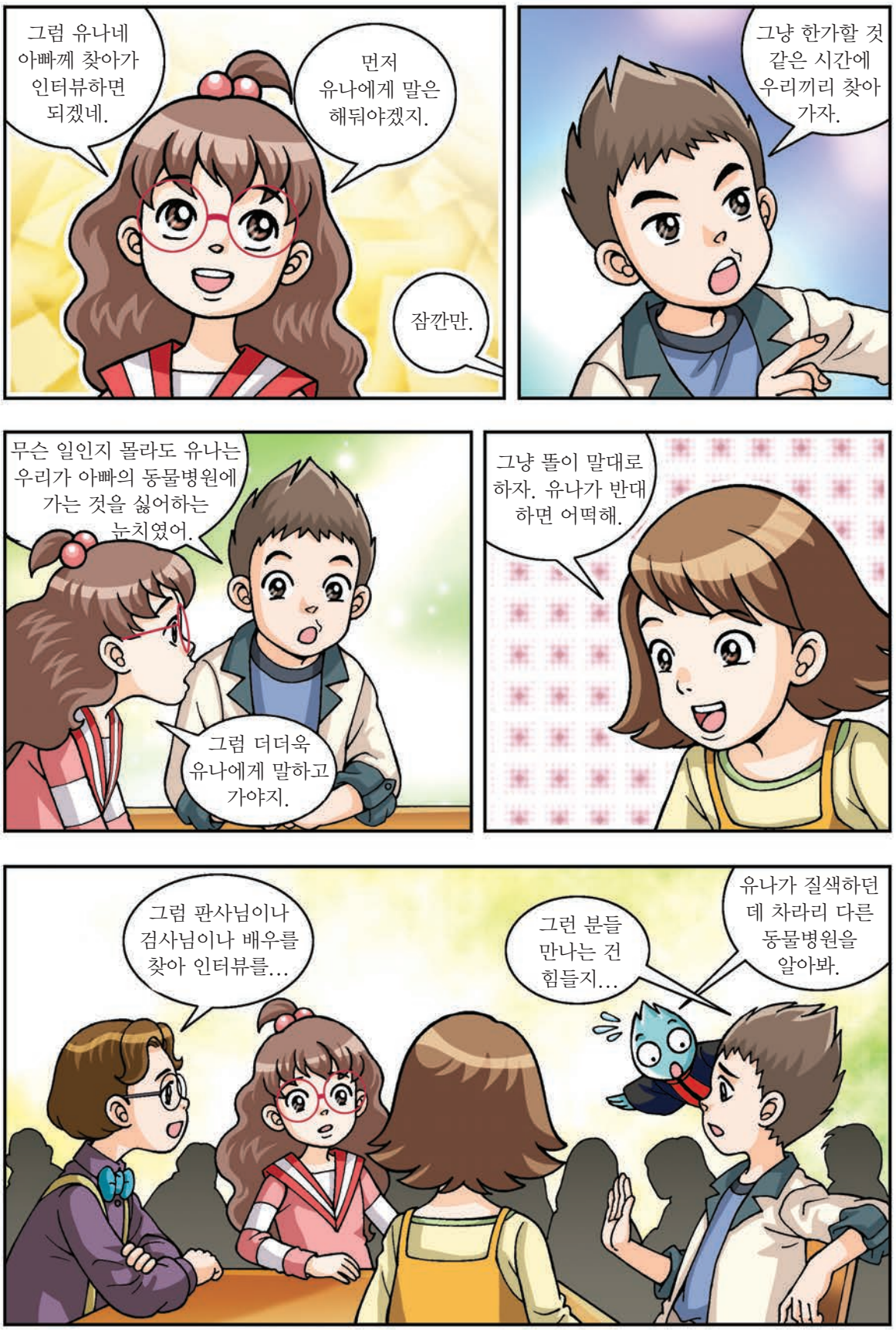

너희들 아는 사람 중에 판사나 검사, 배우가 있어?
……
아! 맞다.


이유나네 아빠가 수의사 선생님이시잖아.
넌 그 말을 믿냐? 그거 뻥이야. 뻥!
어느 병원인지 절대로 말을 안 하잖아.


아냐. 마트에서 우연히 유나 아빠를 만났었는데 진짜 수의사셨어.
헐~ 정말?


맨날 아빠가 뭐 사주셨다, 해주셨다고 자랑하는 것도
난 그냥 판타지 소설 쓰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였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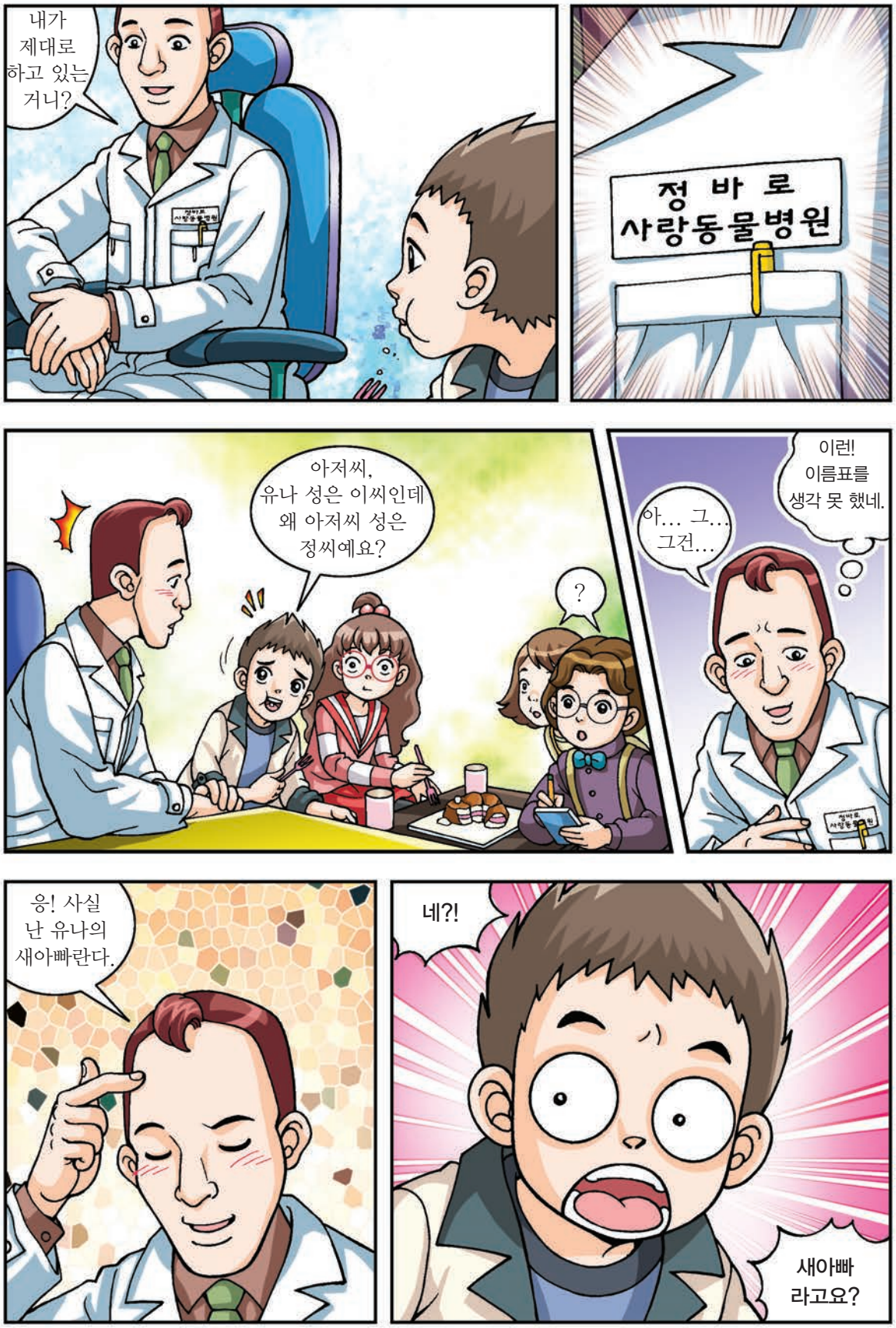

눈앞에서 그 비싼 장난감을 척하고 사주시는데 얼마나 부럽던지…
집도 부자인가 봐.
음, 진짜로 잘 사는구나.
걔 거짓말쟁이라고 소문났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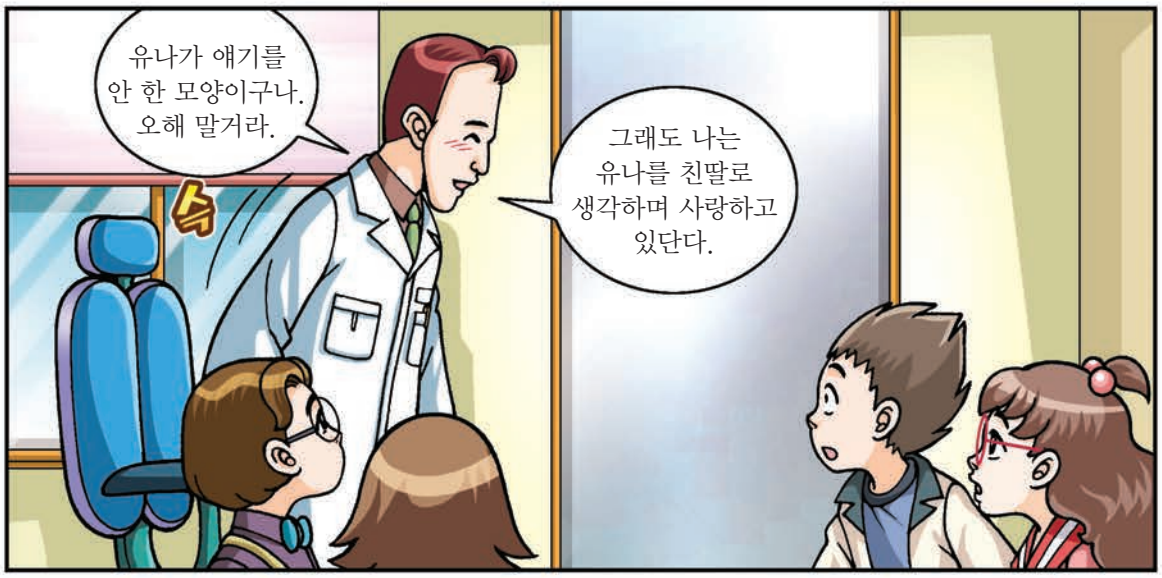

그럼 유나네 아빠께 찾아가 인터뷰하면 되겠네.
먼저 유나에게 말은 해둬야겠지.
잠깐만.
그냥 한가할 것 같은 시간에 우리끼리 찾아가자.
무슨 일인지 몰라도 유나는 우리가 아빠의 동물병원에 가는 것을 싫어하는 눈치였어.
그럼 더더욱 유나에게 말하고 가야지.
그냥 똘이 말대로 하자. 유나가 반대하면 어떡해.
그럼 판사님이나 검사님이나 배우를 찾아 인터뷰를…
그런 분들 만나는 건 힘들지…
유나가 질색하던 데 차라리 다른 동물병원을 알아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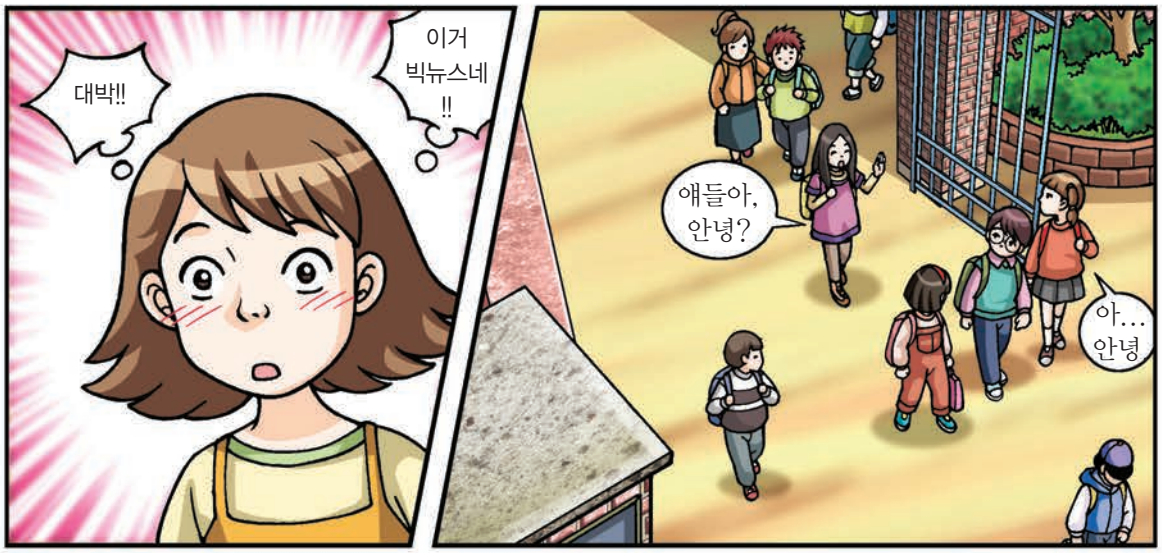

음…
유나에게는 비밀로 하고 내일 동물병원을 기습 방문하자.
똘아, 그건…
사랑동물병원
크아앙
컹
컹
자, 체리 예방접종 끝났습니다.
오구, 오구 내 새끼. 주사 많이 아팠쪄요?
끼잉
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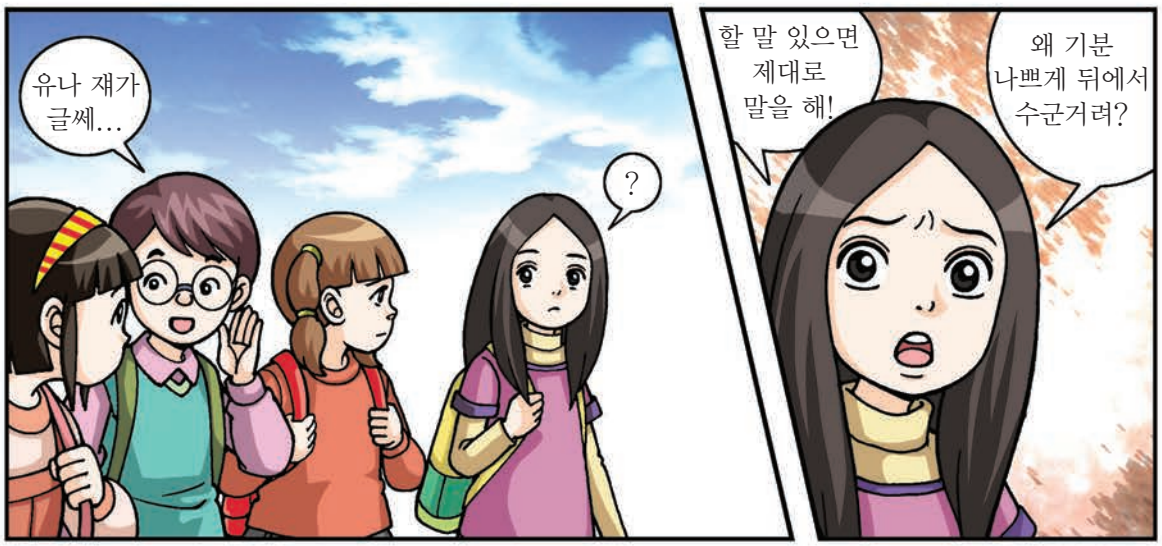

3일간 목욕, 외출 금지시키고, 만일 열이나 구토 등
이상 증세가 있으면 반드시 다시 데려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 원장선생님
따님 친구들이라며 손님이 왔는데요.
유나 친구?
오구, 우리 체리 어서 가자.
안녕하세요? 아저씨.
오, 똘이구나. 어서 오너라. 반갑다.
유나 만나러 왔니?


좀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요.
진로수업 과제가 직업인 인터뷰거든요. 저희랑 인터뷰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인터뷰라니 영광이구나! 어서 오너라.
간호사, 아이들에게 줄 간식거리가 있을까?
케이크가 있어요. 가져올게요.
케이크!!
내가 수의사가 된 건…
어렸을 때 키운 강아지와의 추억 때문이었어.
흔한 잡종견이었지만 정말 똑똑했지. 그런데…
케이크 진짜 맛있다.
크… 유나가 무지하게 부럽구나.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니?
정 바 로 사랑동물병원
아저씨, 유나 성은 이씨인데 왜 아저씨 성은 정씨예요?
?
아... 그... 그건...
이런! 이름표를 생각 못 했네.
응! 사실 난 유나의 새아빠란다.
네?!
새아빠라고요?


유나가 애기를 안 한 모양이구나. 오해 말거라.
그래도 나는 유나를 친딸로 생각하며 사랑하고 있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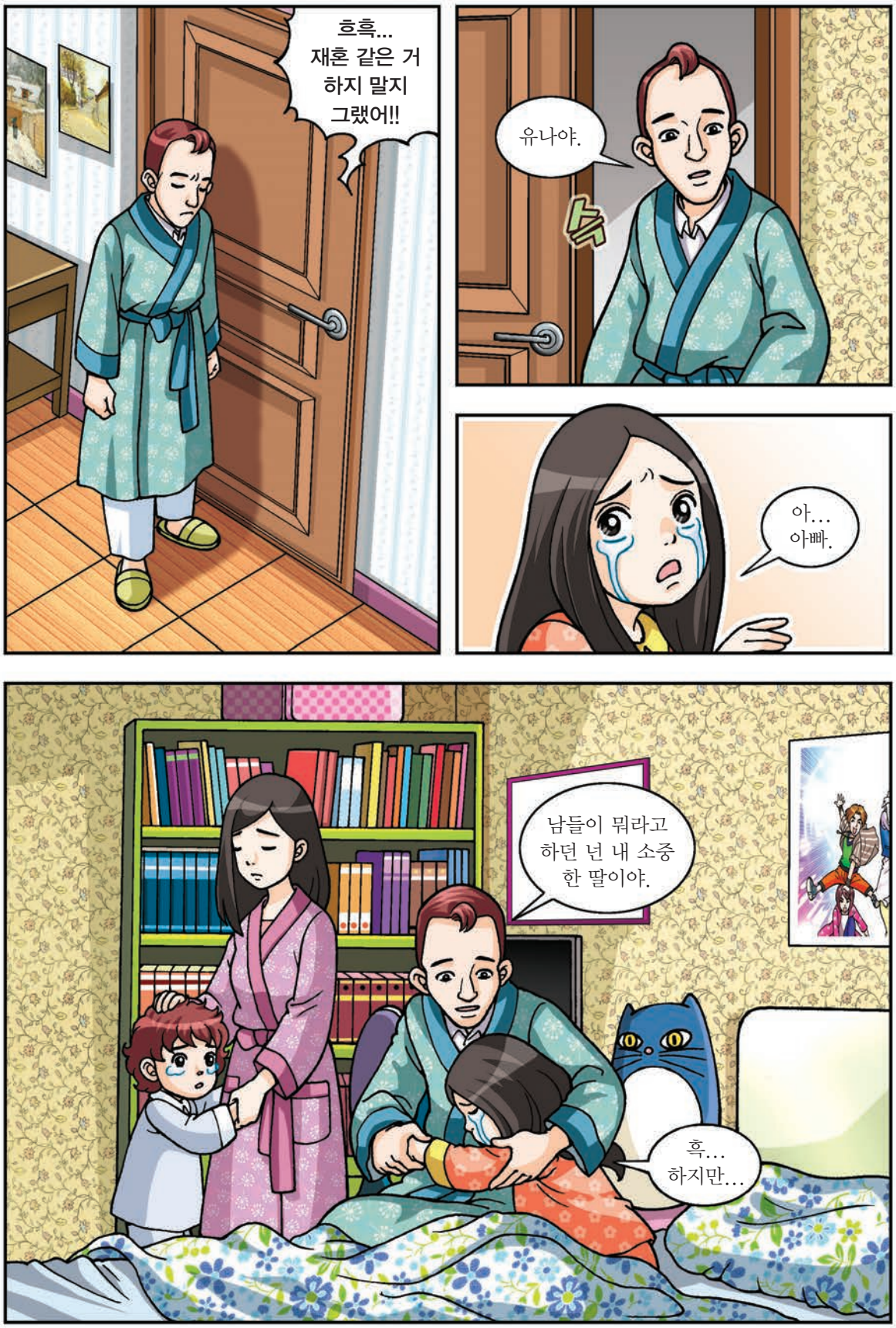

대박!!
이거 빅뉴스네 !!
애들아, 안녕?
아… 안녕


유나 쟤가 글쎄…
?
할 말 있으면 제대로 말을 해!
왜 기분 나쁘게 뒤에서 수군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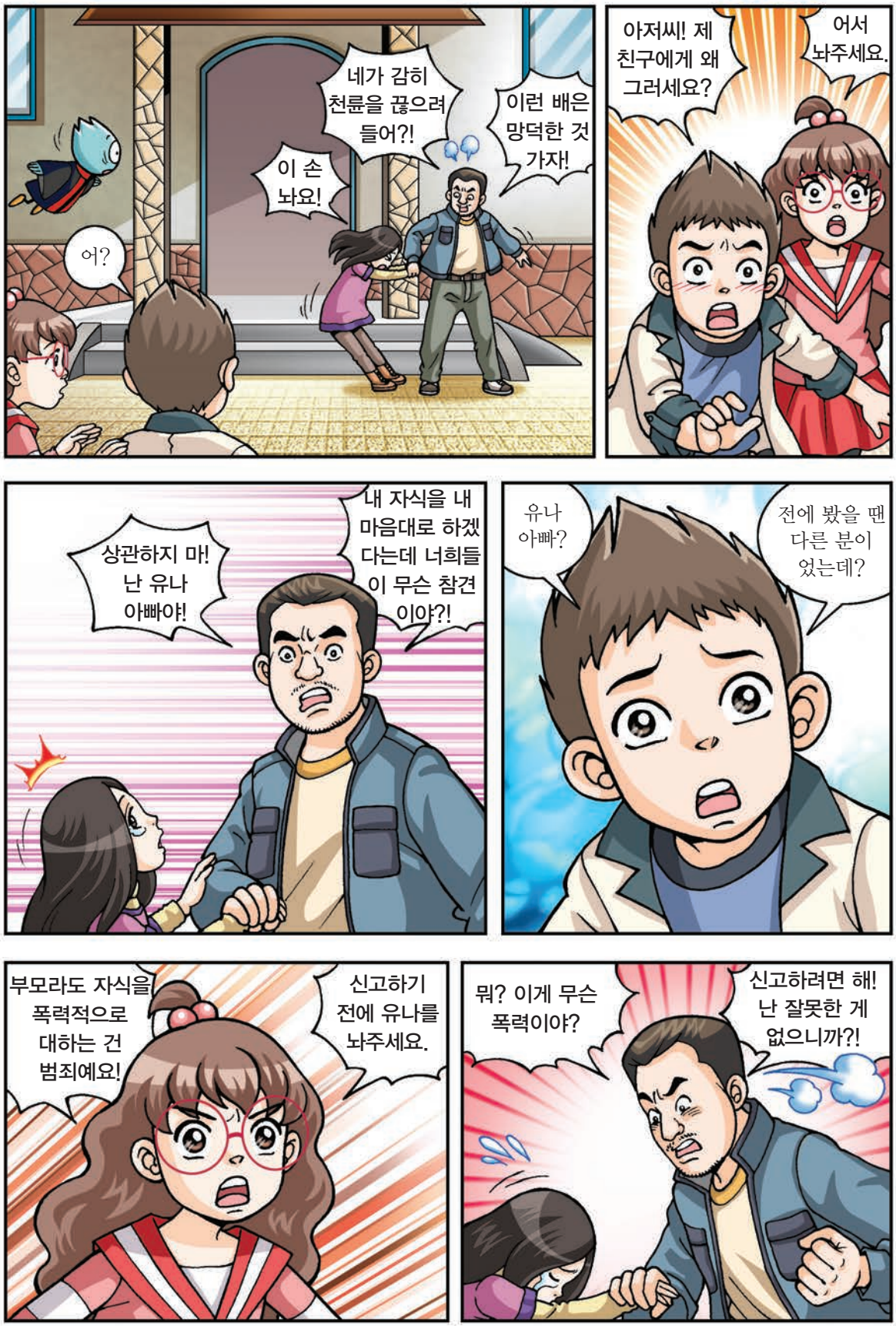

이유나, 너 이제까지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 실은 주워온 애라며?
뭐?
누가 그런 거짓말을 해?!
너야말로 거짓말쟁이잖아.
너희 아빠 성은 정씨라며?
얄미가 어제 똘이랑 같이 동물병원에 가서 확인했댔어.
알고 보니 우리 학교 1학년생 중에 네 동생이 있더라. 동생도 정씨고.
성씨를 영어로 패밀리 네임이라고 하잖아. 그런데 넌 아빠하고 성씨가 다르네.
공주님인 척하더니... 반전이네.
진짜 어이없다.


야! 너희들 왜 그래?
유나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몰아붙여?!
유나가 잘못했잖아! 거짓말하면서 나댔으니까.
아빠랑 성씨도 다르다면서.
아… 아니, 난…
유나야!
그 후 유나는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유나야.


네가 잘못한 일도 아닌데 왜 학교에 안 나가? 네가 더 당당해야지.
친구들이 나보고 거짓말쟁이래!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학교에 나가?
누나...
난 네 누나 아냐.
넌 정씨고, 난 이씨잖아. 난 너 몰라.
흑!!
유나야! 동생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몰라! 엄마도 밉고, 진호도 밉고, 아빠도 다 미워!!


흐흑... 재혼 같은 거 하지 말지 그랬어!!
유나야.
아... 아빠.
남들이 뭐라고 하던 넌 내 소중한 딸이야.
흑... 하지만...


유나야 실은 예전부터 네게 권하고 싶은 일이 있었단다.
?
신중히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간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제 네 의견을 들을 때가 된 것 같구나.
유나가 날 만나줄까?
나 때문에 유나 아빠에 대한 소문이 퍼진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넌 친구들에게 유나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했잖아.
끄응… 얄미! 언젠가는 그 가벼운 입이 일을 낼 줄 알았어!
이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했는데.
유나에게 찾아간다고 연락은 미리 했지?
응, 간다고 톡을 보냈는데 답이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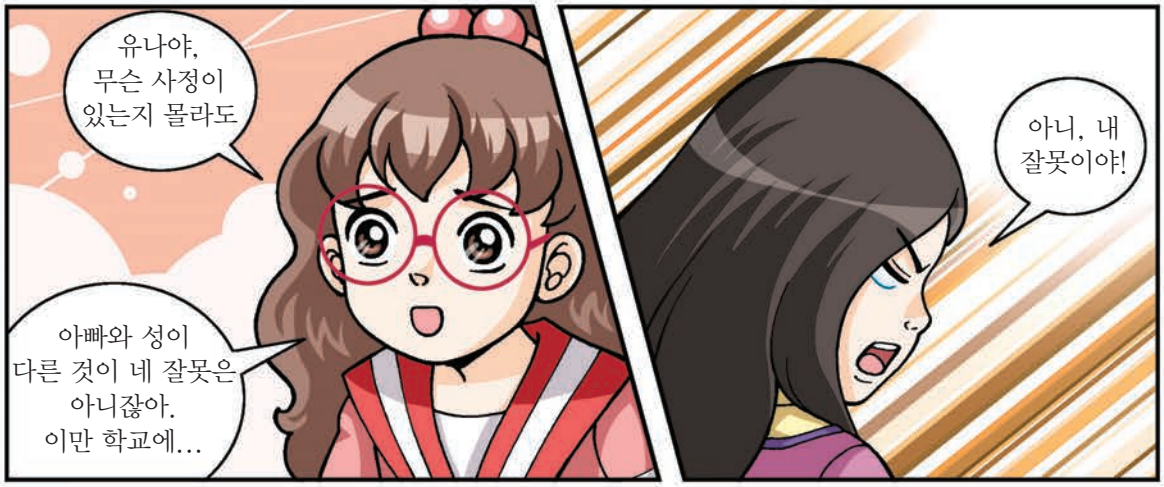

어?
이 손 놔요!
네가 감히 천륜을 끊으려 들어?!
이런 배은 망덕한 것 가자!
아저씨! 제 친구에게 왜 그러세요?
어서 놔주세요.
상관하지 마! 난 유나 아빠야!
내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너희들이 무슨 참견이야?!
유나 아빠?
전에 봤을 땐 다른 분이었는데?
부모라도 자식을 폭력적으로 대하는 건 범죄예요!
신고하기 전에 유나를 놔주세요.
뭐? 이게 무슨 폭력이야?
신고하려면 해! 난 잘못한 게 없으니까?!


안 되겠군.
경찰!
흡! 여기가 어디지?
!?
경찰 아저씨! 도와주세요. 여기 이 아저씨가...
?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례합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아, 딸아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약간 큰 소리가 난 것뿐이에요.
딸은 무슨... 5년 만에 처음 얼굴 보는데...
잠깐 서에 가서 이야기를 좀 나누실까요?
괜찮아요, 괜찮아. 이제 막 돌아가려던 참입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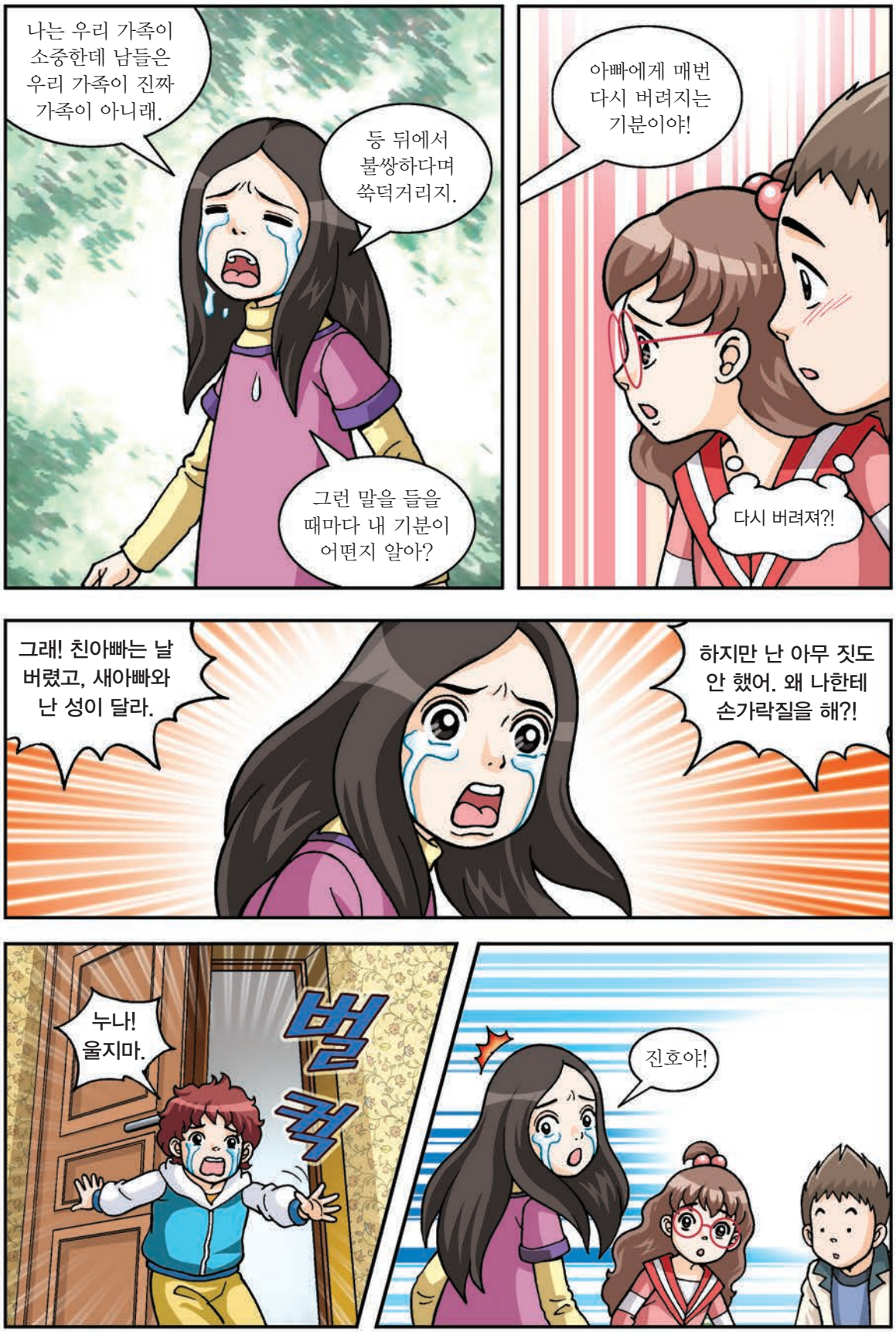

괜찮니?
… 네.
유나! 넌 영원히 내 딸 이유나 임을 잊지 마라!
네 엄마한테도 그렇게 꼭 전해! 난 절대 반대다!
…?
어? 경찰 아저씨가 안 보이는데?
다시 원래 자리로 보내 드렸지, 크크.
역시!
그 정도 가지고 뭘…


유나야...
한똘, 다 너 때문이야! 너 피하려고 집에서 나오다가 친아빠를 만나 버렸잖아.
미... 미안.
아... 친아빠였구나.
유나야, 우리가 불편한 건 이해해.
그래도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 해서...
막무가내로 너희 아빠 동물병원에 찾아가서 미안해.
잘난이 장래희망이 수의사래서...
내 생각이 짧았어.
그러면 뭐해? 친구들이 다 알아 버렸는걸.


한똘 네가 다 망쳤어. 내가 오지 말라고 했잖아.
그동안 아빠와 성이 다른 것을 친구들에게 숨기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미안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


유나야,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몰라도
아빠와 성이 다른 것이 네 잘못은 아니잖아. 이만 학교에...
아니, 내 잘못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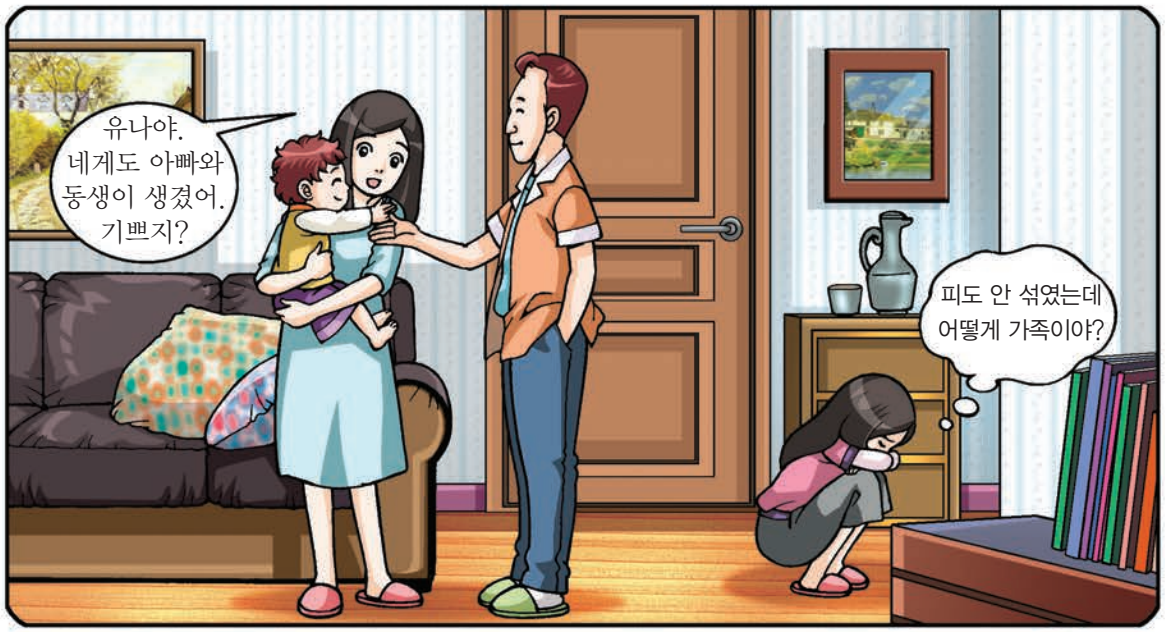

?!
내가 아무 짓을 안 해도 내 잘못이야.
아빠와 성이 다르다는 것만으로 사람들은 나를 이상하게 보거든.


나는 우리 가족이 소중한데 남들은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이 아니래.
등 뒤에서 불쌍하다며 쑥덕거리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내 기분이 어떤지 알아?
아빠에게 매번 다시 버려지는 기분이야!
다시 버려져?!
그래! 친아빠는 날 버렸고, 새아빠와 난 성이 달라.
하지만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왜 나한테 손가락질을 해?!
누나! 울지마.
벌컥
진호야!


우에엥~ 우리 누나 울리지 마!
미안해, 형이 죽을 죄를 지었어.
툭탁
툭
진호야, 누나 괜찮아.
놀랐지? 미안해.
누나
유나야, 똘이와 난 네 편이야. 너를 이해하고 위로해주고 싶어. 괜찮다면 네 이야기를 해주지 않을래?
좋아, 친구에겐 처음 털어놓는 거야.
아까 길에서 봤던 그 아저씨는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사람... 친아빠야.
원래는 친아빠, 엄마, 오빠, 나 이렇게 네 명이 가족이었는데 5년 전에 부모님이 이혼하시면서 갈라졌지.
그러다 2년 전 엄마가 지금의 새아빠와 재혼하셨어. 새아빠는 남동생인 진호를 데리고, 엄마는 나를 데리고 와 한 가족이 되었어.
아빠
오빠
엄마
유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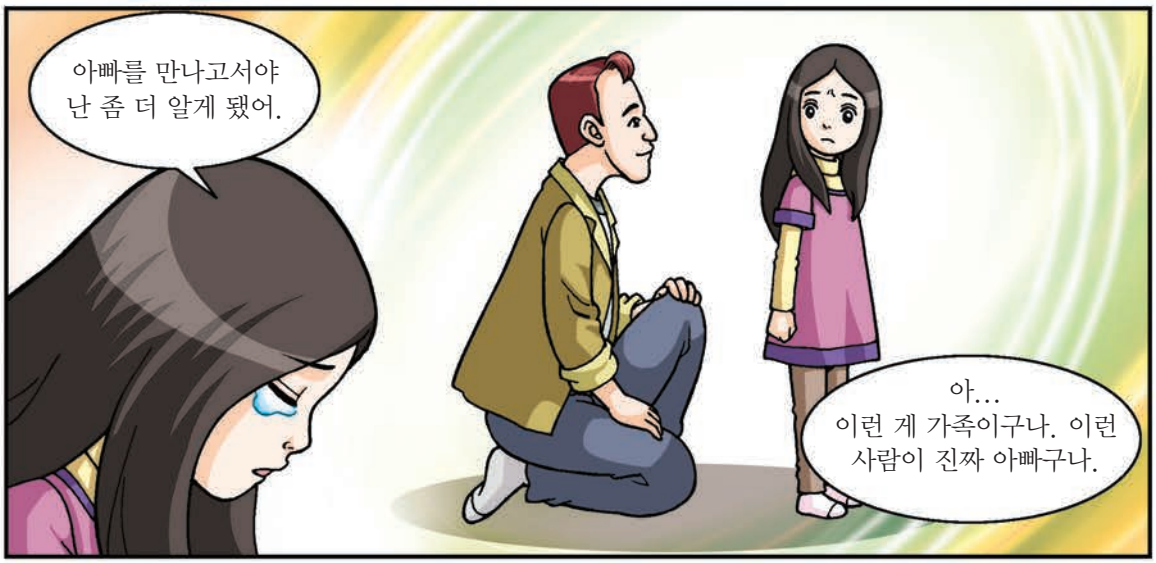

아빠의 사업실패로 생활도 힘들었고, 매일 아빠는 소리치고 화만 냈었지만…
그래도 아빠를 잃은 느낌은 끔찍했지.


아빠는 이혼 후 한 번도 날 만나러 오지 않았어.
아빤 날 버리신 거야.


유나야. 네게도 아빠와 동생이 생겼어. 기쁘지?
피도 안 섞였는데 어떻게 가족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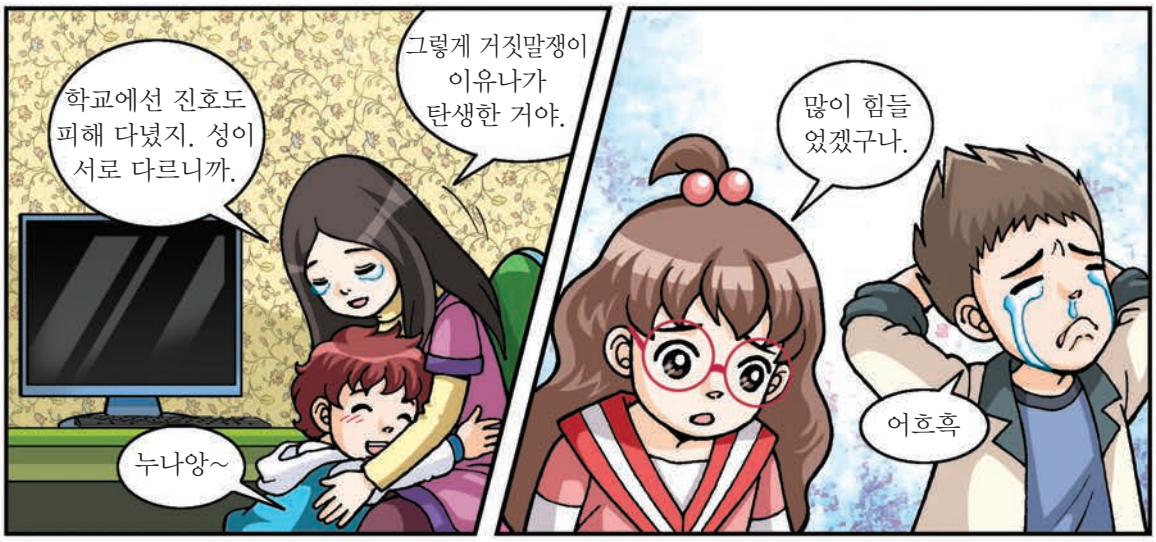

난 1년간 새아빠를 아저씨라고 불렀어.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고약한 심통도 부렸지.


하지만 새아빠는… 아니 아빠는 한결같이 내게 다정하게 대해주시며 내 마음이 열리길 기다려주셨어.


아빠를 만나고서야
난 좀 더 알게 됐어.
아...
이런 게 가족이구나. 이런
사람이 진짜 아빠구나.


그러자 내가 아빠의 친딸이 아닌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까 봐 무서워졌어.
우리 아빤
딸바보야.
매일 선물을
사 주신다니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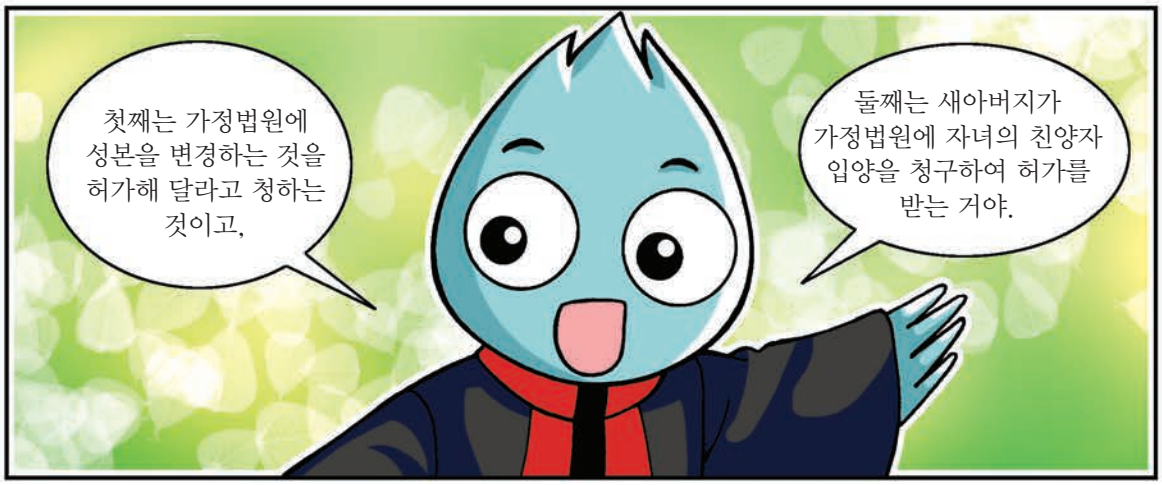

그래서 아빠 자랑도 심하게 하고 친구들이 집안 사정을 알게 될까 봐 친하게 지내지도 못했어.
유나야,
너희 집에
구경하러
가도 돼?
절대
안 돼!


학교에선 진호도
피해 다녔지. 성이
서로 다르니까.
그렇게 거짓말쟁이
이유나가
탄생한 거야.
누나앙~
많이 힘들
었겠구나.
어흐흑


앞으로 널 거짓말쟁이라 부르는 애가 있으면 내가 혼내줄 거야. 크흐흑.
성씨 문제도 더 이상 이야기 못 하도록 잘 타이를게. 우리와 같이 학교에 가자.
아니...
지금은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아.
역시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네게 줘서...
아냐. 아냐.
우선 성씨 문제를 정리하고 학교에 가려고 해.
어쩌면 내가 성씨를 바꿀 수도 있거든.
성씨를 바꾼다고? 어떻게?
똘이 눈물이 쏙 들어갔네.


나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엄마가 가정법원에 날 대신해 성씨를 바꾸는 신청을 하셨대.
아깐 그 사실을 알게 된 친아빠가 화가 나서 우리 집에 쳐들어오신 거였고…
그렇구나.
나도 지금은 잘 모르겠어. 법원에서 과연 허가해 줄지도 모르겠고.
성씨가 바뀌면 내 삶도 바뀌는 걸까? 친구들은 날 또 어떻게 생각할까…
유나에게 이런 사정이 있는 줄 몰랐어. 마트에서 봤을 땐 그냥 사이좋은 아빠와 딸로 보였는데…
응.


뉴스나 드라마를 보고 재혼가정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유나의 말을 듣고 부끄러워졌어.
나도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네 말을 들으니 나도 부끄러워지네.
요즘 결혼하는 부부 중 재혼가정도 많아.
재혼가정도 가족의 한 형태지.
앞으로 가족의 모습이 다양해질 텐데, 난 너희들이 좀 더 넓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어.
응.
그런데 성씨는 어떻게 바꾸는 거지? 정말 바꿀 수 있는 거야?
성씨를 바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첫째는 가정법원에 성본을 변경하는 것을 허가해 달라고 청하는 것이고,
둘째는 새아버지가 가정법원에 자녀의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 허가를 받는 거야.


아까 유나가 한 말로 미루어보면, 유나는 「성본변경 신청」을 한 듯해.
성본? '성'은 성씨일 테고 '본'은 또 뭐야?


본은 본관을 말해. 조상님들이 살던 거주지역 혹은 시조의 출생지 말이야.


흠~ 난 청주 한 씨니까 성은 '한', 본은 '청주'인거네?
그렇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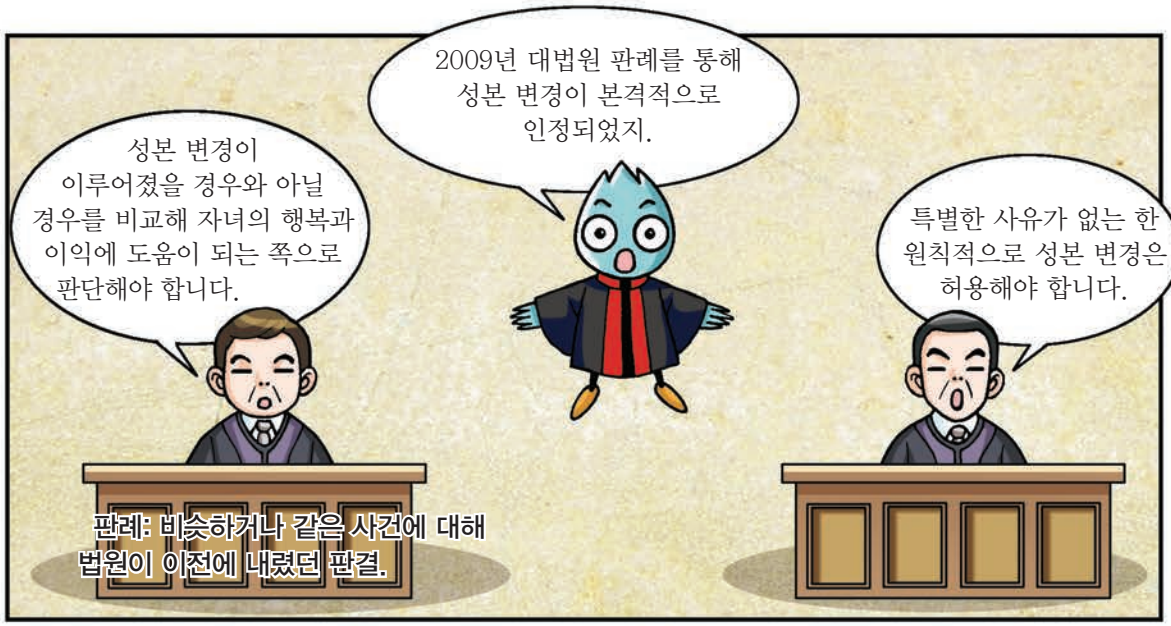

법원에서 유나의 성을 흔쾌히 바꿔 줄까? 걱정이야.
OH


2008년도 이전에는 불가능했었지만, 지금은 꽤 가능성이 있어.
2008년은 또 왜?


과거에는 유교의 영향으로 남성 위주의 가족법이 시행되었어.
가정을 이끄는 것은 가장인 남자이고.
여자와 아이들은 가장을 따라야 해.


성본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였었는데…
성본은 무조건 남편의 것을 따라야 하고
남편과 이혼해 엄마 혼자 애를 키워도 마찬가지야!
한번 정해진 성은 절대 바꿀 수 없다니…


하지만 2005년 양성평등의 시대에 맞추어 법이 개정되었지.
자녀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하지만
법 전
예외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거나 다른 성과 본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은 2008년도부터 적용합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009년 대법원 판례를 통해 성본 변경이 본격적으로 인정되었지.
성본 변경이 이루어졌을 경우와 아닐 경우를 비교해 자녀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성본 변경은 허용해야 합니다.
판례: 비슷하거나 같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이전에 내렸던 판결.


성과 본을 바꾸도록 법원에서 허가해 주는 기준은
어디까지나 당사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인지 아닌지야.
복리가 뭐야?
좀 쉽게 말해봐.


미안, 간단히 말해서 행복과 이익이야.


자녀가 행복하려면 또 더 이익이 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를 법원은 여러모로 고민하지.
자녀의 나이
…
부모의 생각
법원
…
…
자녀의 성숙 정도
자녀의 주변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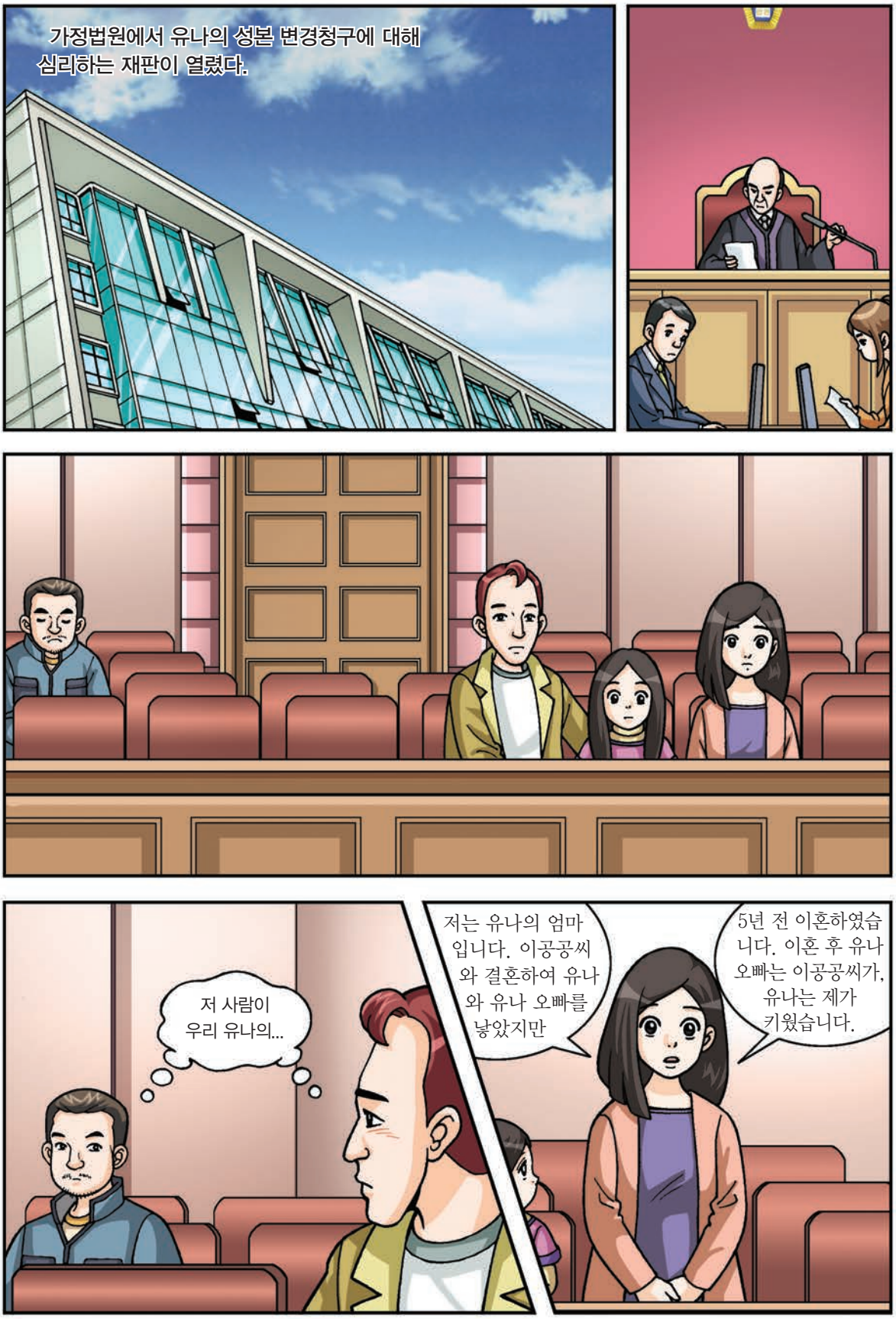

그래서 유나의 친 아버지의 의견에도 법원은 귀를 기울일 거야.
?
안 돼! 유나의 행복을 위해선 친아버지의 의견은 안 듣는 게 더 좋다구.
맞아. 유나를 너무 거칠게 대하셨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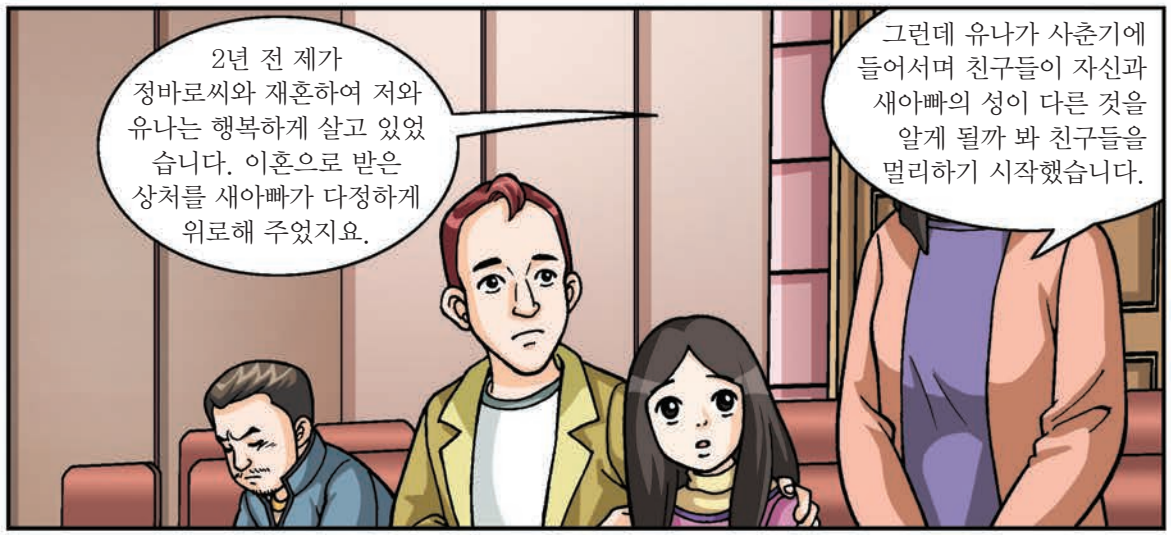

차라리 내가 법원에 의견을…
어머?
슈근
슈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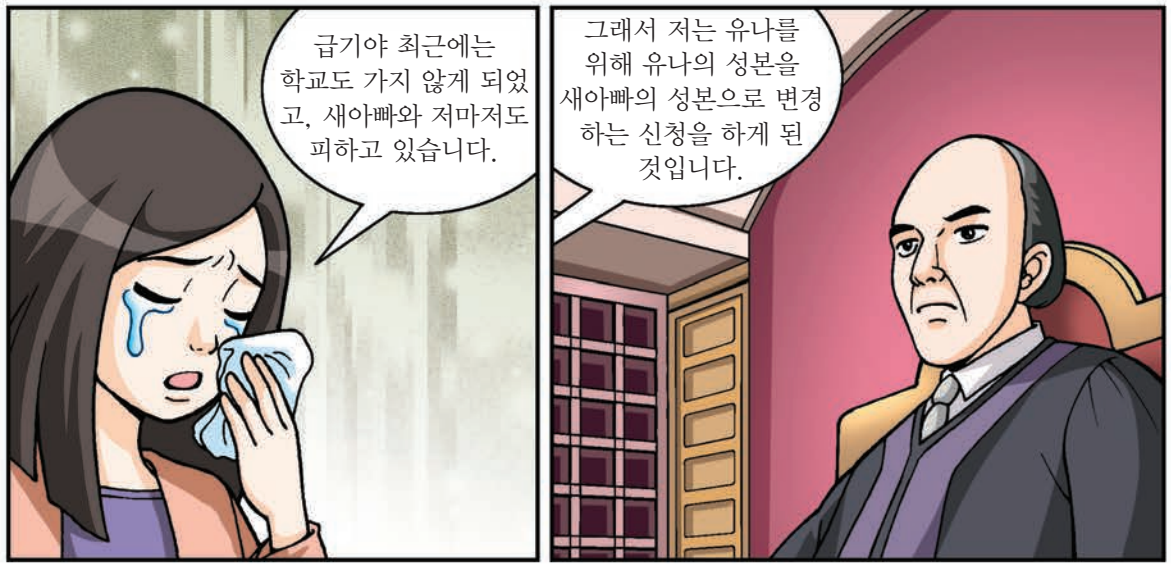

재들 좀 봐. 무서워.
아무 것도 없는데 허공을 보며 이야기 하고 있잖아.


신들린 걸까?
복권 번호 좀 물어봐.
이만 집에 가자.


얼마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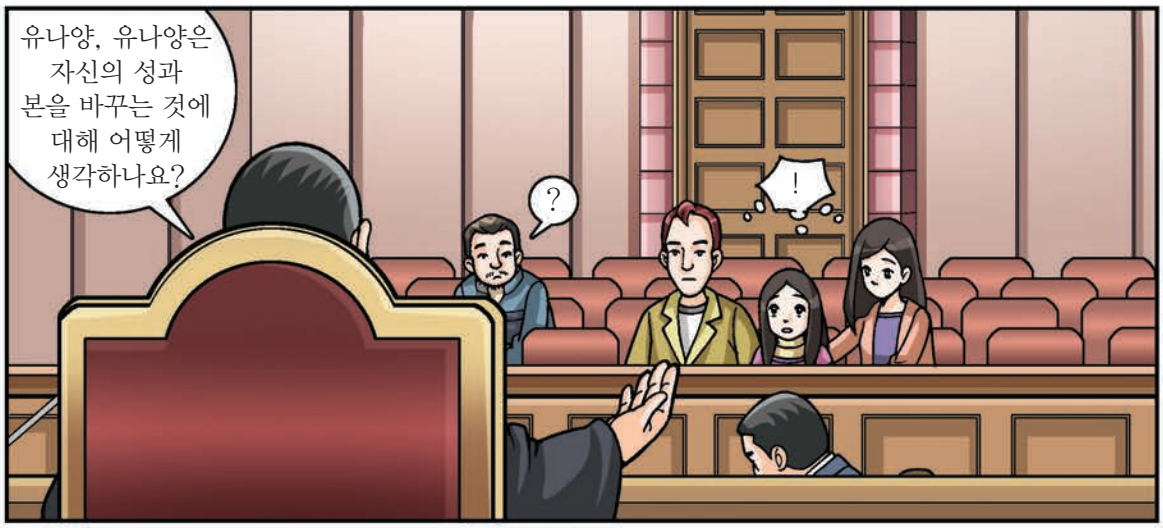

가정법원에서 유나의 성본 변경청구에 대해 심리하는 재판이 열렸다.
저 사람이 우리 유나의...
저는 유나의 엄마입니다. 이공공씨와 결혼하여 유나와 유나 오빠를 낳았지만
5년 전 이혼하였습니다. 이혼 후 유나 오빠는 이공공씨가, 유나는 제가 키웠습니다.


2년 전 제가 정바로씨와 재혼하여 저와 유나는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혼으로 받은 상처를 새아빠가 다정하게 위로해 주었지요.
그런데 유나가 사춘기에 들어서며 친구들이 자신과 새아빠의 성이 다른 것을 알게 될까 봐 친구들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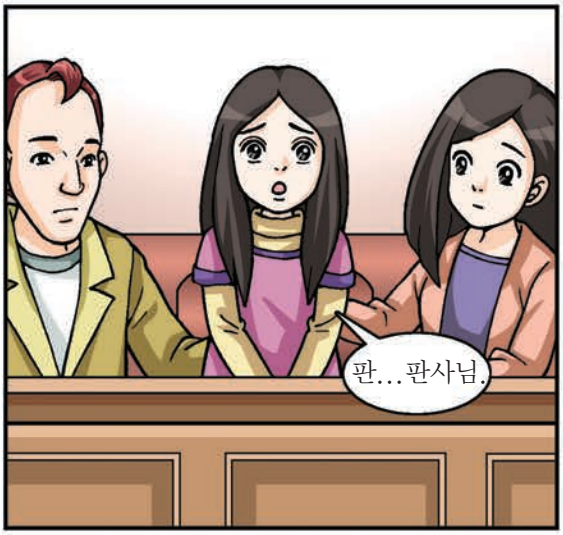

급기야 최근에는 학교도 가지 않게 되었고, 새아빠와 저마저도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나를 위해 유나의 성본을 새아빠의 성본으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 유나의 친아빠는 이혼 후 한 번도 유나에게 연락도 안 하고, 양육비도 한 번 보낸 적이 없습니다.
이 법정에 유나의 친아빠가 나와 계신가요?
네... 넷.


성함이 어떻게 되나요?
이공공입니다.
이공공씨는 유나의 성본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나는 분명한 제 딸입니다. 비록 제가 일을 못 해서 양육비도 못 보내고 미안해서 연락도 한 번 못 했지만.
한 번도 유나를 마음에서 떠나보낸 적이 없습니다.
더욱이 유나 오빠도 성본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유나만 바꾼다면 남매 관계도 끊는 것이 됩니다.
유나의 성을 바꾸는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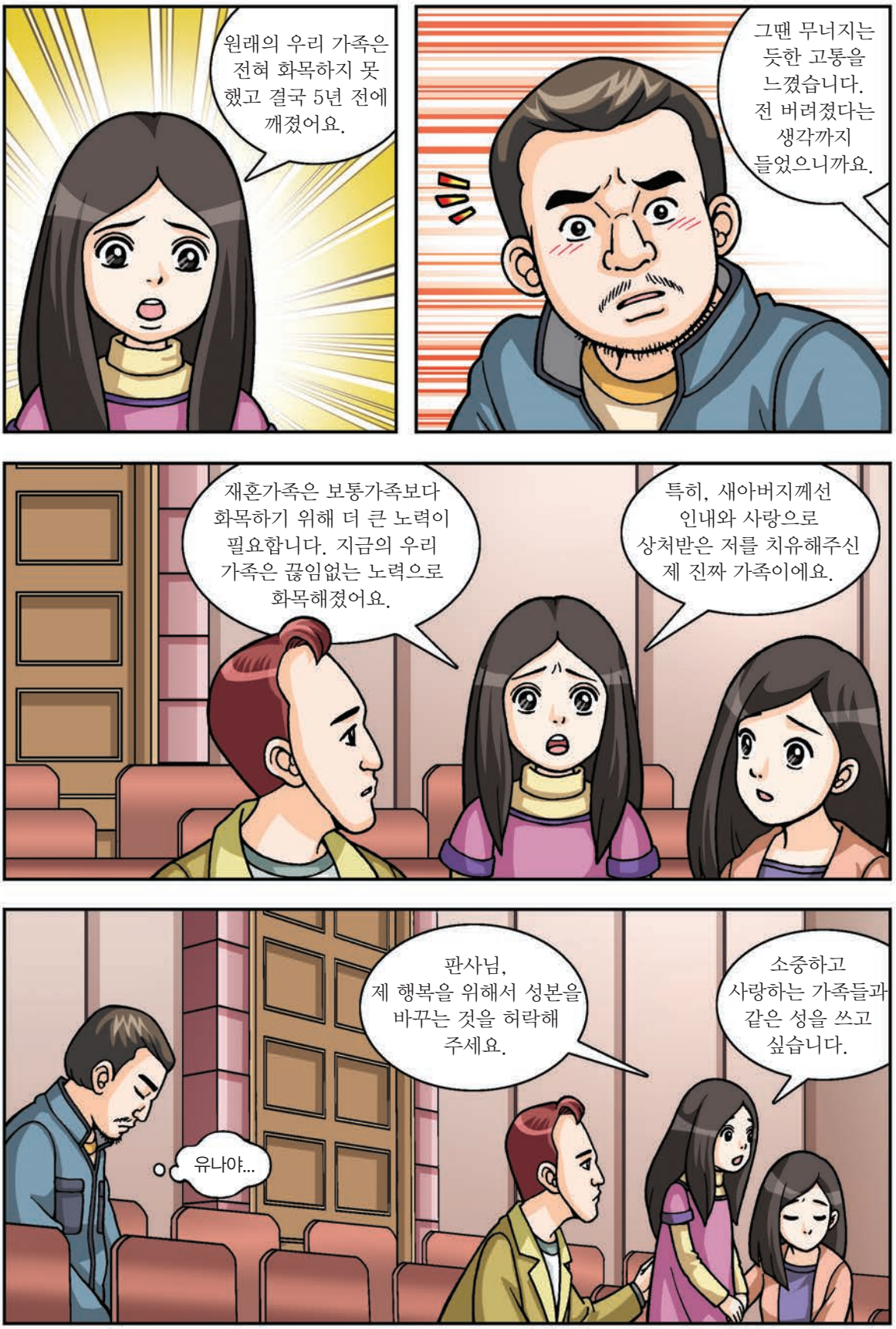

유나양, 유나양은 자신의 성과 본을 바꾸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


괜찮아, 유나야. 아빠가 곁에 있잖아.
아빠.


판...판사님.


그동안 저는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새아빠를 사랑하면서도 떳떳하지 못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더 행복한 척 크게 과장해서 자랑하고 돌아서서 부끄러워하기도 했었어요.


이번 일을 통해 가족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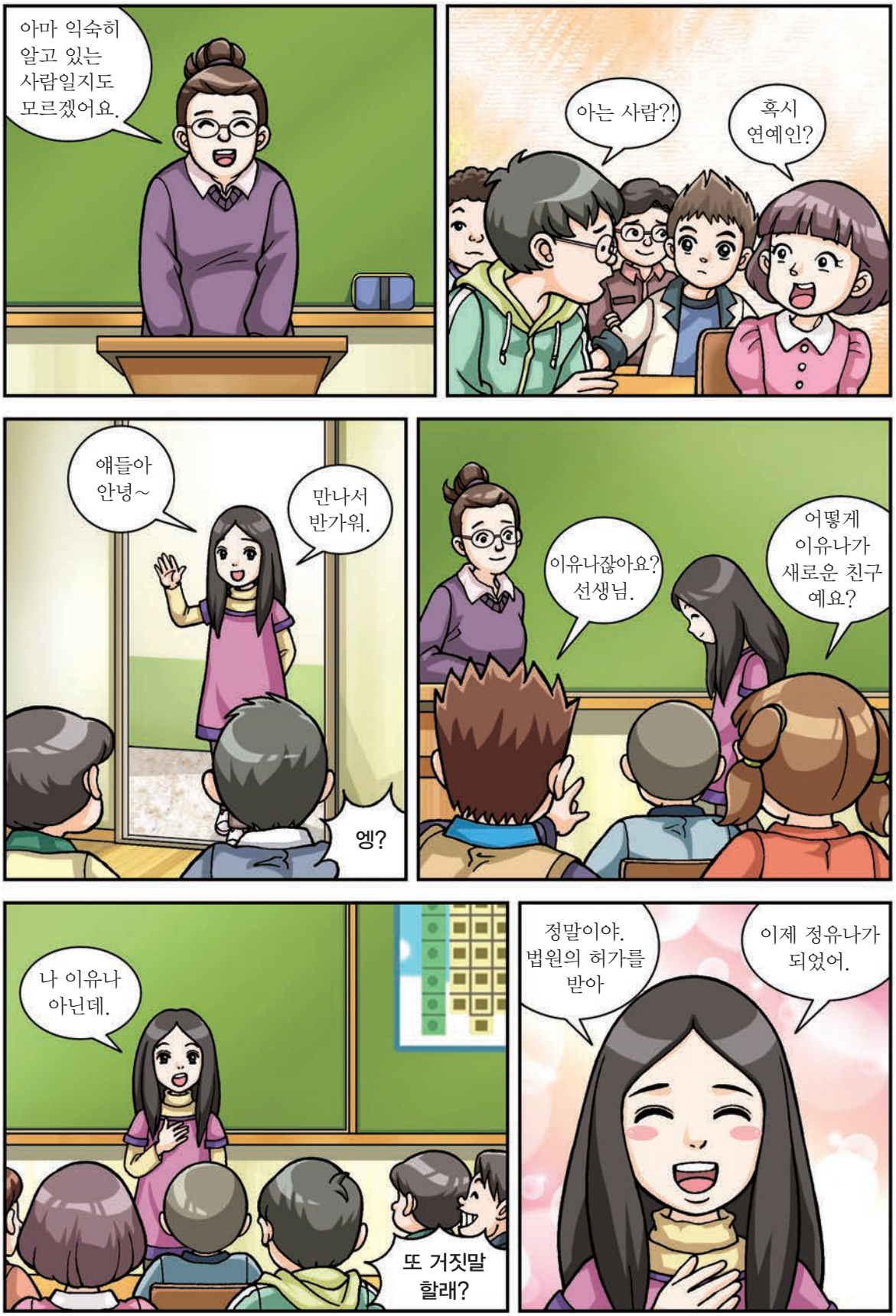

원래의 우리 가족은 전혀 화목하지 못했고 결국 5년 전에 깨졌어요.
그땐 무너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전 버려졌다는 생각까지 들었으니까요.
재혼가족은 보통가족보다 화목하기 위해 더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우리 가족은 끊임없는 노력으로 화목해졌어요.
특히, 새아버지께선 인내와 사랑으로 상처받은 저를 치유해주신 제 진짜 가족이에요.
유나야...
판사님, 제 행복을 위해서 성본을 바꾸는 것을 허락해 주세요.
소중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같은 성을 쓰고 싶습니다.


잘했다, 잘했어.
우리 유나 다 컸구나.
그럼 결정하겠습니다.
유나양의 성본이 변경될 경우, 유나양의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이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나의 친아빠가 반대하고 있지만, 이혼 후 친아빠와의 유대관계는 이미 상실된 것으로 보이고,
유나양 본인이 자신의 성본 변경을 강력히 희망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의 성본 변경 청구를 허가합니다.


유나야, 판사님께서 허가해 주셨어.
이제 넌 이유나가 아니라…
유나야.
흑… 흐흑!
유나야, 왜 그러니?
혹시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
아니에요, 그냥…
저도 모르겠어요. 기쁜데… 기쁘면서도 마음이 아파요.
기분이 이상해요.
유나야, 잠깐만 아빠와 이야기 좀 해줄 수 있니?
이공공씨! 당신이 얼마 전에 유나에게 위협한 거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유나에게 상처 주지 말고 가세요.


죄송합니다. 유나 생각은 하지 않고, 제 생각만 했지요.
좀 전에 유나의 이야기를 듣고 많이 부끄러웠고 또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싶어서…
할 말이 뭔데요?
오늘 처음으로 나를 봐주는구나. 고맙다.
네가 '이유나'이든 '정유나'이든 너는 유나란다.
누구의 딸 유나가 아닌 이 세상 당당히 맞서 살아갈 한 사람으로서의 유나야.
못난 아빠지만 멀리서나마 널 응원하마.
건강하거라.


오빠랑은 계속 연락하고 지냈었어요.
만약 제 소식이 궁금하시면 오빠에게 물어보세요.
우리도 가요, 엄마! 아빠!
여러분! 오늘 우리 반에 새로운 친구가 왔어요.


아마 익숙히 알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아는 사람?!
혹시 연예인?
애들아 안녕~
만나서 반가워.
엥?
이유나잖아요? 선생님.
어떻게 이유나가 새로운 친구예요?
나 이유나 아닌데.
또 거짓말 할래?
정말이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제 정유나가 되었어.


정… 유나?
사실 우리 집은 재혼가정이거든. 이전까지 친아빠의 성을 따라 쓰다가
새아빠의 성인 '정'으로 바꾸게 된 거야.
내가 그동안 아빠 자랑을 심하게 하다못해 잘난 척까지 해서 너희들이 날 못마땅하게 생각한 것 알아.
가정 사정을 숨기고 싶어서 바보같이 나 자신까지 숨기며 떳떳지 못하게 굴었지.
이제 숨기지 않고 솔직히 말할게. 새아빠와 내동생 진호는
피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하는 사랑하는 내 가족이야.
유나야, 큰 용기를 내었구나. 대단해.


일반적으로 가족은 혈연관계로 이루어진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재혼가족, 양부모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있어요.
어떤 형태의 가족이든 가족의 근본은 사랑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틀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알아주면 선생님은 참 기쁘겠어요.
저기, 유나야.
예전에 네게 심한 말을 해서 정말 미안해.
너무 부끄러운 짓을 했어.
우릴 용서해 줄래?


성도 바꾸고 새사람으로 태어났으니 서로 잘못한 것은 잊고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유나야, 고마워.
이야~ 정유나 멋지다.
유나야, 내 옆에 앉아.
나랑 짝꿍하자, 정유나.
고마워.
어머, 유나가 인기가 많네. 어디에 앉을래?
전 똘이 옆에 앉을래요. 실은 오래 전부터 똘이를 좋아했었거든요.
허거걱!!


나리야, 우리 라이벌이 됐네.
유… 유나야 마음은 고마운데 나에게는 나리가…
메롱, 농담이거든.
선생님, 저 원래 자리에 앉을게요.
그러렴.
새사람이 되긴 뭘… 똑같구먼.
에구! 유나가 널 좋아해서 놀리는 것이잖아.
하 하 하
어서 와, 정유나.
고마워.

제6화 심화학습

행복하게 사는 것도 우리의 권리일까요?

우리나라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만화 속 주인공 유나의 성을 바꿀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은 유나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내린 판결이에요. 여러분 모두는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이를 행복추구권이라고 합니다.

행복추구권이란?

1. 국민이라면 누구나 행복하게 살 권리
2. 다른 사람의 강요 없이 자기가 원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

■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찾아보세요.



■ **6화 '내 이름은 정유나' 이야기는 실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하고 있어요.**

6화 '내 이름은 정유나' 이야기의 내용은 2009년 대법원 판례 내용이에요. 재혼가정의 딸이 새아빠와 행복하게 살고 있었지만, 딸이 새아빠와 성이 달라 생활에 불편을 겪어 딸의 성과 본을 새아빠와 같은 것으로 바꾸는 것을 대법원에서 허가해 준 것입니다. 대법원은 비록 딸의 친아버지가 반대하더라도 딸이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성과 본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 범죄를 숨기는 등의 불순한 의도가 아니라면 딸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대법원 2009. 12. 11.자 2009스23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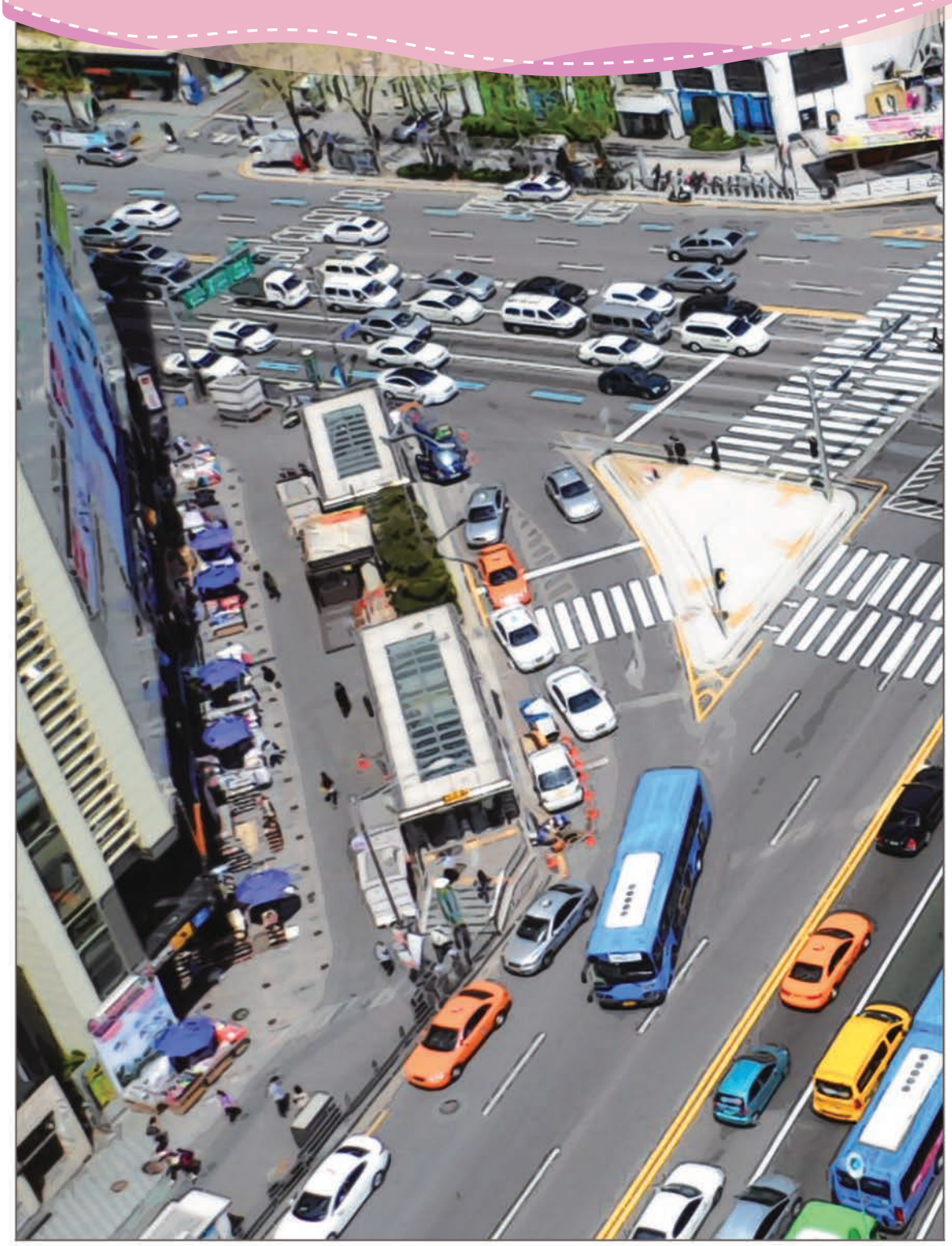


■ **여러분이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찾아 줄을 이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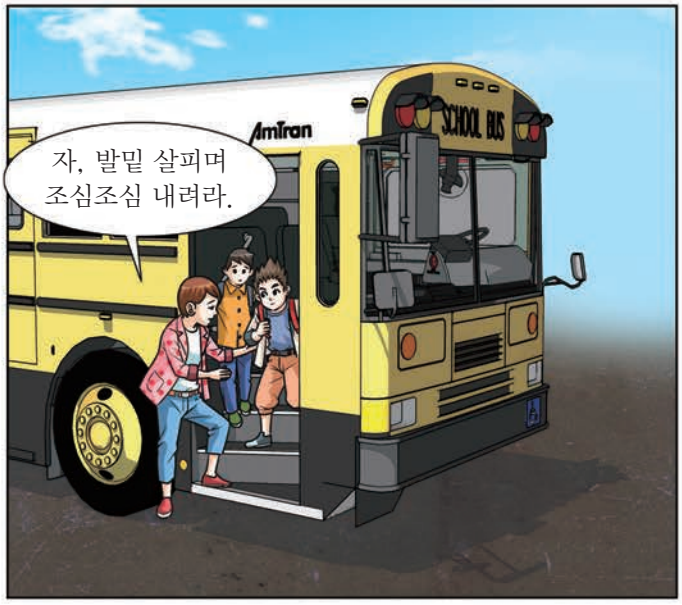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　)을 유지해요.	(　)한 가족을 위해 형제자매와 싸우지 않아요.	내가 할 일을 (　)롭게 결정해요.
●	●	●
●	●	●
자유	건강	화목

제7화

천방지축 천지축




SCHOOLS
끼이이익


SCHOOL BUS
AmTran
자, 발밑 살피며
조심조심 내려라.


이곳이 오늘부터
내가 다닐 학원인가!
크크,
왜 그렇게
폼을 잡는데?


로켓 미사일!
퍽
끄악!


야! 꼬마!
이게 무슨 짓이야?
헹~
누가 멍하게
있으래?


애들아,
장난치지 말고
얼른 들어가자.
저 녀석이!
넹~
또아, 너 여기는
어쩐 일이야?
피아노 학원
나리야!
드디어 다시 만났구나.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호호!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가워.
너희들 두 시간
전까지 학교에
같이 있었거든?
바로미도 다시 만나니
좋은 걸. 또이가 우리
학원에 다니게 된 덕에
우리 셋이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났어.
크크... 그래, 그래.
어제 네가 우리
학원에 등록하러
왔을 때 깜짝
놀랐어.
또이 넌 미술이나
피아노에 관심이
없었잖아.


지금도 그닥 관심없어.
엄마가 어제 갑자기 화를 내시더니 날 끌고 오신 거였어.
갑자기 화를 내셨다고? 왜?
나도 몰라.
휙
휙
왜 그걸 몰라?
네가 어제 네 엄마께 그려드린
이 초상화 때문이잖아!
너무 사실적으로 그렸나? 그래도 눈은 크게 그렸는데…
남잔지 여잔지도 모르겠다.
내가 왼발로 그려도 이것보다는 잘 그리겠다.


우헤헤~
나 잡아봐라!
지, 지축아!
휘 잉
저 꼬맹이가 또...!
얘들아,
도로에서
장난치면
위험해!
메롱, 메롱!
못 잡겠지?
후다닥
부아아앙
휙
부웅-


야! 차도로 뛰어 들면 어떡해!
죽을 수도 있다고!
흥! 안 다쳤으면 됐지, 뭘!
으엑!
탁
지축아, 네가 차에 치이는 줄 알고 심장이 떨어질 뻔 했잖아. 조심해야지.
놀라게 해서 미안해, 누나. 앞으로는 안 그럴게.
그래, 약속이다.
야! 꼬맹이! 나리에게서 안 떨어져?
절대로 안 떨어지지롱~
똘아, 얘 이름은 천지축, 우리 학원 최고의 말썽쟁이야.
헤헤~ 안녕? 똘이형!


!
내가 1학년이긴 하지만 이 학원은 2년째 다니고 있으니 선배야. 선배님이라고 불러.
진짜 안 귀여운 꼬맹이다.
크크… 귀여운데 뭘 그래?
안녕하세요? 원장 선생님이셔,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오! 그래, 어서 오렴.
새로 온 형이에요.
똘이는 오늘 정식으로 첫 수업이지?
네.
즐겁게 해 보자꾸나. 첫 수업은 피아노란다.
피…


아아~ 피아노 앞에 앉으니 잃어버린 오디션의 꿈이 생각나 슬퍼지는구나.
음악 쪽은 영 아니구나.
띵띵
띵 동!!
띵 동
자! 수고했어. 오늘 피아노 수업은 끝~
20분 후에 미술교실에서 미술수업 시작할테니 그동안 쉬렴.
네, 감사합니다.
꾸벅


나리누나!
나리야, 보고 싶었어.
나도 그랬어!
이젠 일일이 지적하기도 지쳤다. 닭살 커플.
밖에 비와.
어머, 정말이네.
혹시나 해서 우산을 챙겨와서 다행이네. 그래도 집에 가기 전에 그쳤으면 좋겠어.
이런 날은 떡꼬치에 어묵국물이 딱인데…
하하, 똘이형 말투가 우리 아빠 같아.
아! 학원 앞 길 건너편에 분식집이 있는데.


분식집?
응! 거기 떡꼬치 맵지도 않고 매콤달달해. 겉은 바삭하고 안은 쫄깃한데 땅콩가루까지…
크윽! 그만! 계속 듣기 괴로워.
더 이상의 설명은 낭비다! 분식집으로 가게 앞장서라!
옛썰!
순식간에 사이가 좋아졌네, 뭘.
똘아, 지축아! 선생님께 허락 받고 나가야지.
학교도 아닌데 허락받아야 되나?
당연히 받아야지. 이곳에서 우리의 보호자는 선생님이시잖아.
휘익
그럼 내가 원장 선생님께 물어보고 올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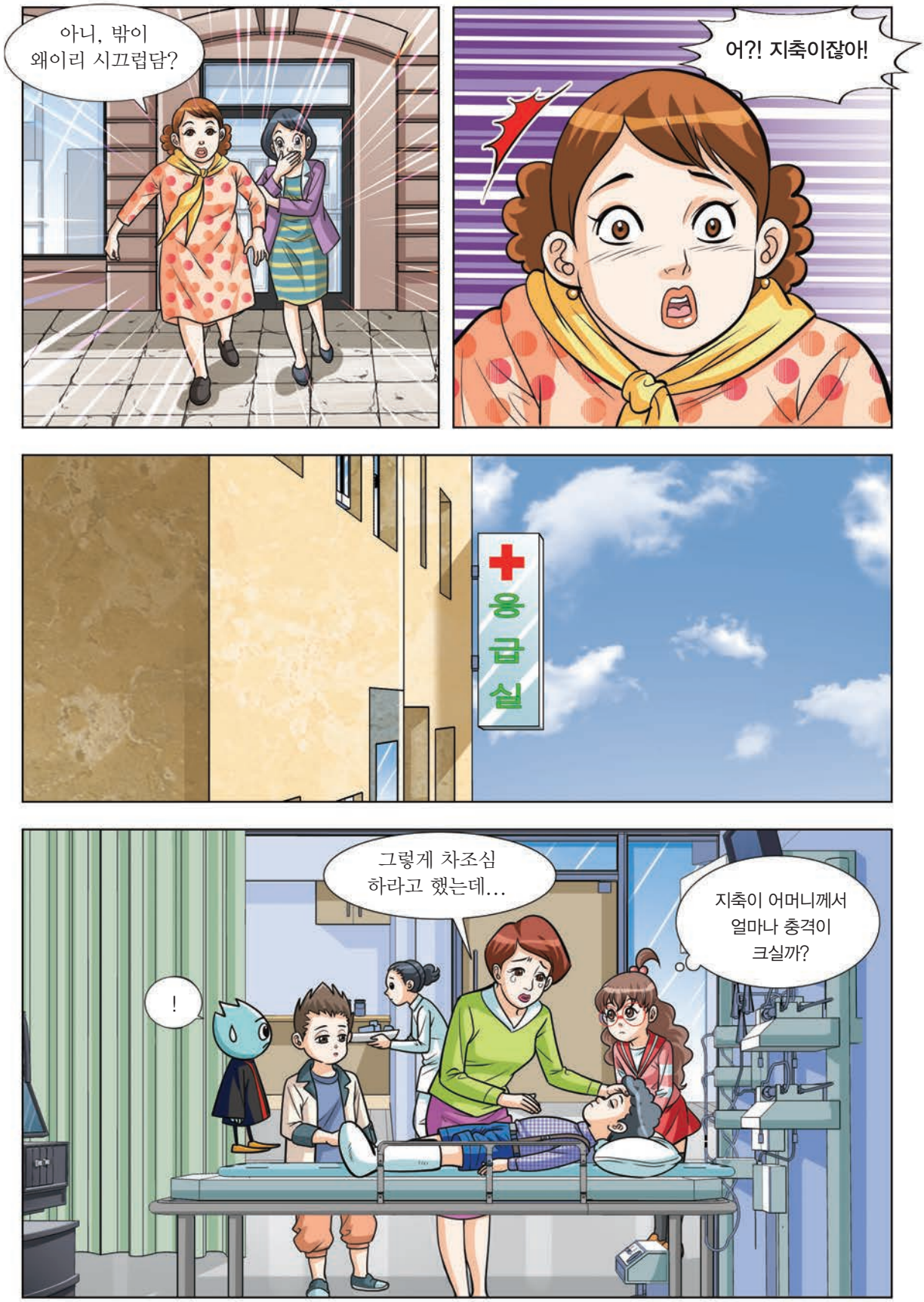

뭐 그런걸 나한테 묻니? 대한민국은 자유국가야.
쉬는 시간인데 너희들 마음대로 하렴.
참고로 내것까지 사올 필요는 없다.
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저 분식집이구나.
셋이 같이 우산 쓸 수 있을까?
초록불이야! 빨리 건너!
깜빡
깜빡


지축아, 깜빡거리잖아.
신호가 바뀔꺼야. 기다려!
안돼!
괜찮아! 금방 뛰어가면 돼.
야! 지축아! 위험해!
빨리 와! 똘이형!
초록색 불이 깜빡거리지만...
건너는 사람이 없으니 얼른 우회전하자!
앗!
뜨헉!


어? 어?
끼이익
야야!!
지축아!!!
저런!
안돼!
휘~
팍!!
콰
앙


퍽
컥?
퉁
퉁
지축아!
지, 지축이가!!
잠깐!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돼!
내가 방어막을 씌워 충격을 약화시켰으니 일단 손대지 마!
지축아! 괜찮아?


기절했어! 만지지 마.
난 119에 전화할게.
어떡해!
덜덜덜
으으! 뭐야? 갑자기 튀어 나오면 어떡해?!
으악! 차가 일그러졌잖아!
!
01가 2345
아저씨! 사람이 차에 치였는데
사람은 안보이고 차만 보이세요?
아니, 쪼그만게 어디서 큰 소리야?
그 꼬맹이 때문에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


아니, 밖이
왜이리 시끄럽담?
어?! 지축이잖아!
응급실
그렇게 차조심
하라고 했는데...
지축이 어머니께서
얼마나 충격이
크실까?
!


그래도 크게 다치지 않았으니 천만다행이에요.
암! 천만다행이고 말고!
너희들이 끝까지 곁에 있어줘서 고맙구나.
그런데 왜 학원 안에 있어야 할 지축이가 밖에 있었던 거야?
죄송해요. 제 책임이에요. 제가 괜히 지축이에게 떡꼬치가 먹고 싶다고 해서
길건너 분식집에 가다가 그만...
그 시간에 너희들이 학원 밖에 있었던 걸 원장 선생님도 아셨니?
네! 지축이가 원장님께 외출 허락을 받아왔어요.
평소 다른 친구들도 쉬는 시간에는 허락 없이 바깥을 오갈 수 있었거든요.
세상에... 학원이 그토록
무책임하게 운영되는지 몰랐구나.
벌떡


보호자분 나가 보세요. 학원 원장이라는 분과 가해자 차주가 뵙자고 합니다.
!
!
다녀오세요. 지축이는 저희가 보고 있을게요.
고맙다.
운전자 아저씨... 다친 지축이에게 오히려 화를 냈었지.
응, 엄청 뻔뻔했어.
원장 선생님도 남의 일 보듯 방관만 하셨잖아.
아줌마가 괜스레 걱정되네.
바로미, 정말 고마워. 네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더 큰일 날 뻔 했어.
내가 뭘...
바로미, 지축이 좀 또 부탁해.
사고에 대해 무슨 이야기를 나누시는지 보고 올게.


어디로 가셨지?
아니, 책임이 없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겨우 여덟 살인 우리 애가 바로 당신 차에 치어서
지금 침대에 누워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아주머니, 감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댁의 아들이 신호를 위반해서 사고가 났다고요.
응급실


초록불이 깜빡거려 신호가 바뀌려는데
갑자기 횡단보도로 튀어나와 저도 얼마나 놀랐는지 아십니까?


깜빡이고 있었다 해도 초록불은 초록불이잖아요.
그럼 아저씨도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셨어야죠.
허허... 기가 막혀서...
아줌마, 도로교통법 몰라요?
뭐라고요?
도로교통법을 보면 초록불이 깜빡이기 시작할 때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해서는 안된다고 나와 있다고요.
길을 건너고 있던 사람도 빨리 길을 건너 가거나 아예 되돌아 와야 한다고 나와 있지요.
그런데 댁의 아들이 이 법을 어겨서 애꿎은 제 차까지 박살이 났다고요.
아...아니...


아니, 초록불은 초록불이지.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 법이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나라에 있죠. 이 아줌마 참 답답하시네.
…!
지축 어머님, 진정하세요. 제가 객관적 입장에서 보니
지축이가 잘못한 것 같아요.
뭐라고요?
놀라신 마음 이해하지만 차분히 생각해 보세요.
이것 보세요. 원장님!
저는 원장님도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전 아무 짓도 안했어요.


저는 선생님을 믿고 지축이를 학원에 보낸 거에요.
그런데 분명히 그 시간에 학원 안에 있어야 할 지축이가 어째서 밖에 있었던 거죠?
그 때는 쉬는 시간이었어요.
저희 학원은 학교가 아닙니다. 쉬는 시간까지 아이들을 돌볼 책임이 없다고요.
지축이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아직 판단력이나 분별력이 부족한 걸 모르세요?
저는 아이들 돌보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걱정되면 학원에 보내질 말든지…
요즘 극성 엄마들이 문제라니깐.


오늘 사고는 집에서 교통안전교육을 제대로 안 시킨 탓이 제일 큰 것 같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지축이가 평소에 얼마나 산만했는지 몰라요.
아니, 이 사람들이...!!
말씀들이 심하시네요.
저희 애가 천방지축인 것은 저도 인정하지만
전 그 말씀에 동의 못합니다. 전 아무 책임 없어요.
저도요.
이번 사고가 오로지 저희 애만의 잘못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인정 못합니다.


좋아요, 그럼 법정으로 가서 누구 책임인지 한번 물어보죠.
법!
!
그러시든지요!
휙!
저도 좋습니다.
해봅시다.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되다니...
삼파전!


며칠 후
대학병원
지축아, 병문안 왔어.
자, 병문안 선물이다. 떡꼬치.
안먹어, 이제 떡꼬치는 나의 원수야.
그래? 네가 추천한 대로 맛있던데…
아 앙~
내놔!
씹어먹어서 떡꼬치에게 복수할거야.
왜 혼자 있어? 너희 엄마는?
전화 받으러 나가셨는데 아마 한참 후에 돌아오실거야.


무슨 일인지 몰라도 요즘 무지 바쁘신 눈치더라고.
아마 재판 때문일거야.
엄마께 아무 말씀도 못 들었니?
응, 사고 때문에 재판이 두 개나 열리게 되어 정신없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자세한 이야긴 복잡해서 못 알아들었어.
원장 선생님을 상대로는 민사재판이 열리고 너를 차로 친 아저씨를 상대로는 형사재판이 열릴 거야.
난 1학년이라구! 좀 쉽게 말해봐!
아! 미… 미안.
재판에는 그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이 있단다.

민사재판은 개인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을 때 누가 잘못한 것인지를 가려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재판이야.

民事

백성 민　　일 사



원고: 재판을 청구한 사람

판사

피고: 재판을 청구당한 사람

형사재판은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살펴보고 죄가 있다면 적절한 형벌을 내리도록 하는 재판이야.

刑事

형벌 형　　일 사



검사: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범죄자를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

판사

피고인: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어 재판을 받는 사람



원장 선생님이 지축이 널 제대로 돌보지 못해 사고가 났다고 다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재판과

난 책임 없다니까요.

피고: 유태만

운전자 아저씨가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해 널 차로 치었으니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형사재판이야.

난 잘못 없어요!

피고인: 나급행

운전자 아저씨에 원장 선생님까지 재판을…

일이 무지 커졌구나.

두 분 다 사고에 대한 자기 책임은 없다고 해서 재판으로 누구의 책임인지 판단하려는 거야.

…?

……

누나, 진짜로 내 책임이면 어떡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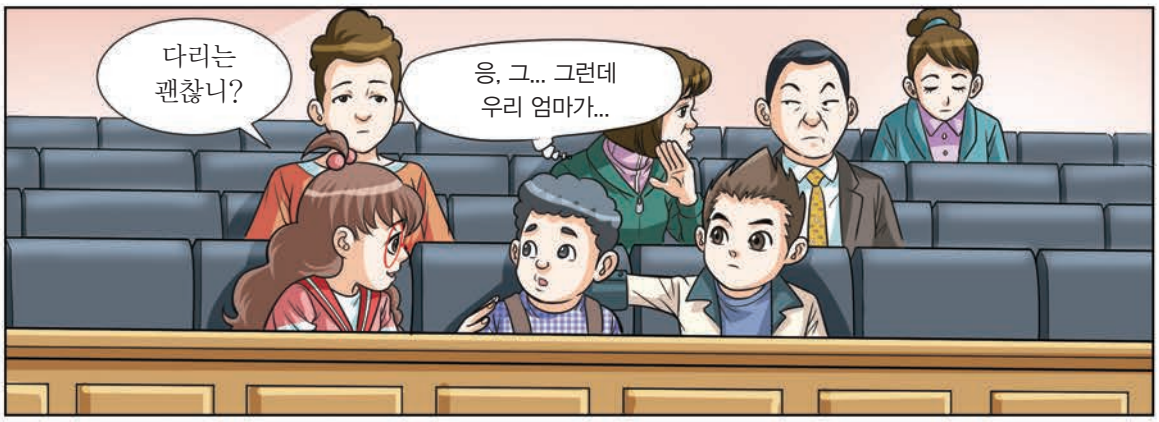
내가 성급하게 굴어서 바보같이 다친거면… 혹시 나 감옥가?


그, 그게 너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잘못을 하긴 했...큭!
누나가 보기엔 네 책임이 아니야. 법원에서도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거야.
큭
어머, 너희들 왔구나!
어서 오너라.
지축이를 보러 와 줘서 너무 고마워.
안녕하세요.
...!
아줌마가 바빠서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했구나.
아! 변호사님. 저 아이가 제 아들 지축이에요.
변호사...
?



얼마 후, 원장 선생님을 상대로 한 형사재판이 열렸다.




다리는 괜찮니?
응, 그... 그런데 우리 엄마가...


엄마! 힘내세...!
저런!


쉿! 쉿! 법정에선 정숙해야 해!
읍!


지축아, 판사님이 양쪽의 말을 잘 들어보시고 현명하게 판결하실거야.
그러니 재판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 조용히 있자.
응, 누나.


법원
지축이는 초등학교 1학년생으로 판단력과 분별력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학원 앞 도로는 많은 차량이 통행하고 있어 어린 학생들이 도로로 나가는 경우,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예상되었습니다.
피고는 지축이가 다니던 학원의 운영자로서 지축이를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무를 게을리하고 어떤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재판장님, 초등학교 1학년에게도 기본적인 판단능력이나 분별력이 있습니다.
학교도 아닌 학원 운영자인 피고가 쉬는 시간까지 학생을 보호 감독할 의무는 없고,
…


!
모든 학생들을
일일이 통제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천지축군이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불행한 일이고
피고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법원
…
피고에게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하겠습니다.
!?..
판결이
뭐야?
학원에서의 교습도
학교 못지않게 널리
이루어지는 만큼
중요한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 운영자나 학원 선생님에게도 학교처럼 보호 감독의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는 수업시간 뿐만 아니라 휴식시간에도 적용됩니다.
에엥?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학원 운영자는 학원생을 통학 차량에 태운 때부터
교육활동이 끝나 보호자가 지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내려 줄 때까지 학생을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천지축군은 초등학교 1학년생으로 판단력과 분별력이 크게 부족하였으므로
사전에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외출을 통제하는 등의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도 포함됩니다.


피고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하여 천지축군이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박 박
아아...
피고는 천지축군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사님.
지축아, 축하해. 판사님이 너의 손을 들어 주셨어.
엥? 어디? 엄마 기도하는 폼인데...
너희 엄마가 이기셨다고.
헤헤, 정말?
지축이에겐 아직 재판이 어려운가봐.
난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어.
판사님이 뭐라고 하셨어?
원장 선생님께서 지축이를 좀 더 잘 돌보셔야 했대.
이제 쉬는 시간에 혼자서 학원 밖으로 마음대로 나가면 안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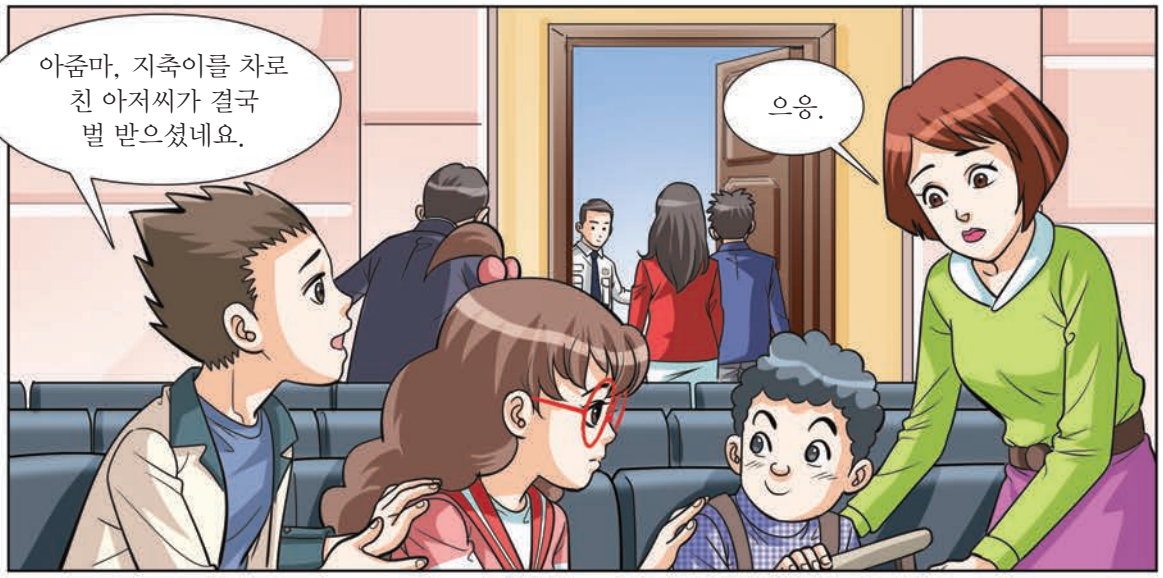

앞으로는 너도 판사님 말씀대로 해야 해.
알았어, 누나.
!
바로미, 내가 여기서 지축이를 질투하면 옹졸한 남자가 되겠지?
원래 질투는 옹졸한 거야.
나리 누나, 똘이형 혼자 뭘 그리 중얼중얼 거리는 거야?
재판이 잘 끝나서 다행이야.
이제 운전자 아저씨의 형사재판이 남았어.
얼마 후 운전자 나급행에 대한 형사재판이 열렸다.
법원
이젠 엄마도 구경만 하는거야?
!
응, 검사님께서 엄마 대신 잘못한 사람을 벌주라고 청하실거야.


모든 운전자들은 안전을 위해 항상 주의하며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고인 나급행은 천지축군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음에도
정지하지 않은 잘못이 있습니다.
후비 후비
애가 건너지 말았어야 했는데 무슨 소리야!
분명 운전자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
하지만 천지축군은 보호의무의 대상자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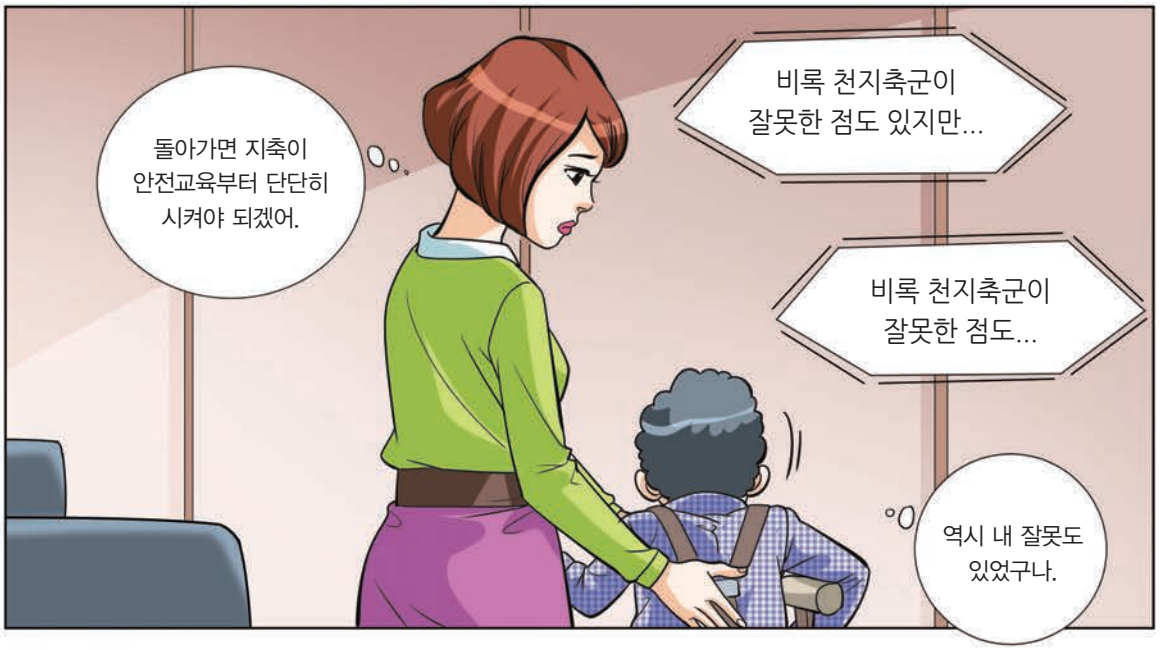

천지축군은 녹색등이 깜빡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서는 안된다는 도로교통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천지축군의 잘못으로 일어난 것이기에
!
...?
피고인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옳소, 옳소.
!..
누나, 내 잘못이라 하는 거지?
아니야, 우리 지축인 아직 어린걸.
이번 사건은 어른들 잘못이 더 커. 판사님도 알아주실 거야.
.....


판결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사건에서 녹색 신호등이 깜빡이는 것을 무시한 천지축군도 잘못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앗싸!
그럼, 그렇지!
꽉
뭐... 뭐라고?!
역시 내 잘못?
하지만 보행 신호등의 신호는 보행자가 통행에 관해 지켜야 할 내용일 뿐 차의 운전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보행자용 신호등
차량용 신호등


또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보행자 보호의무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보행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에 있습니다.
녹색등이 깜빡이기 전에 건너기 시작했는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보행자 보호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비록 천지축군이 잘못한 면은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보행 신호등의 녹색불이 깜박이는 상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천지축군을 충돌한 피고인의 잘못도 인정됩니다.
!
!
그러므로 벌금 오백만 원을 선고합니다.
500!
내, 내가 잘못한 거네!
이, 이게 무슨 망신이람!


아줌마, 지축이를 차로 친 아저씨가 결국 벌 받으셨네요.
으응.


아줌마 표정이 왜 안 좋으시지?
글쎄…


돌아가면 지축이 안전교육부터 단단히 시켜야 되겠어.
비록 천지축군이 잘못한 점도 있지만…
비록 천지축군이 잘못한 점도…
역시 내 잘못도 있었구나.


재판이 모두 끝난 후 학교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안녕하세요? 대법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
척
저는 여러분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교통안전수칙을 알려드리기 위해 왔어요.
교통안전!!
끄응, 교통안전교육을 또...
왜? 넌 이미 다른 곳에서 받았어?
응, 얼마 전에 우리 학교 1학년 애가 학원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잖아.


그 사고 후에 학원에 갈 때마다 매일! 매일! 원장 선생님이 교통안전교육을 해주시고 있다고!
신호등이 녹색이 됐다고 무조건 뛰어가면 안돼요!
저학년들은 쉬는 시간에 밖에 나갈 때 반드시 선생님과 함께 나가야 합니다!


그래도 중요한 거니까 귀담아 들어.
쳇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알리고 싶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생긴답니다.
왜요?
횡단보도는 길을 건너가는 곳이잖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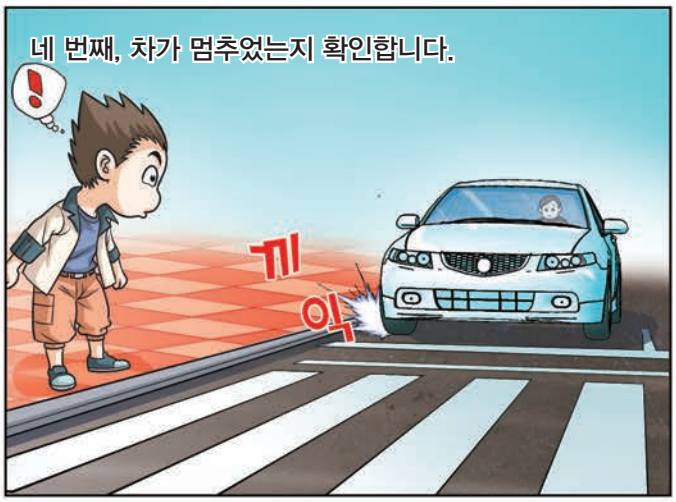

운전자들 중에
교통신호를 정확하게
지키지 않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언뜻 보기에 횡단보도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횡단보도를 주의해서
건너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럼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횡단보도를 건널 땐
5단계 행동을
지키세요.
첫 번째,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멈춘다.
도로횡단사고 중 90%가 갑자기 뛰어들어
일어나는 사고이기 때문에 간단하지만
중요한 절차예요.


두 번째, 좌우로 차가 오는지 살펴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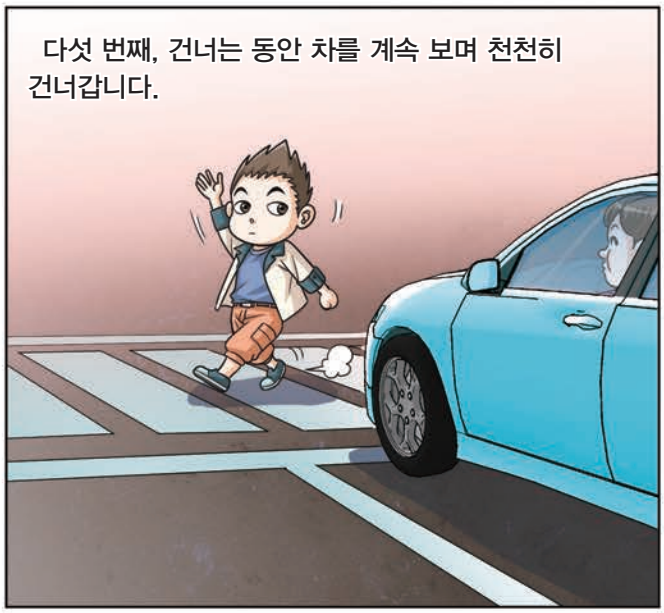

세 번째, 횡단보도 오른쪽에 서서
운전자를 보며 손을 듭니다.


오른쪽에 서게되면 갑자기 출발하는 차와
충돌할 위험이 적어지거든요.
빵


어린이가 길을 건널때
손을 드는 건
'제가 먼저 갈테니
멈춰주세요'라는
뜻이랍니다.
그렇구나!


네 번째, 차가 멈추었는지 확인합니다.
!
끼
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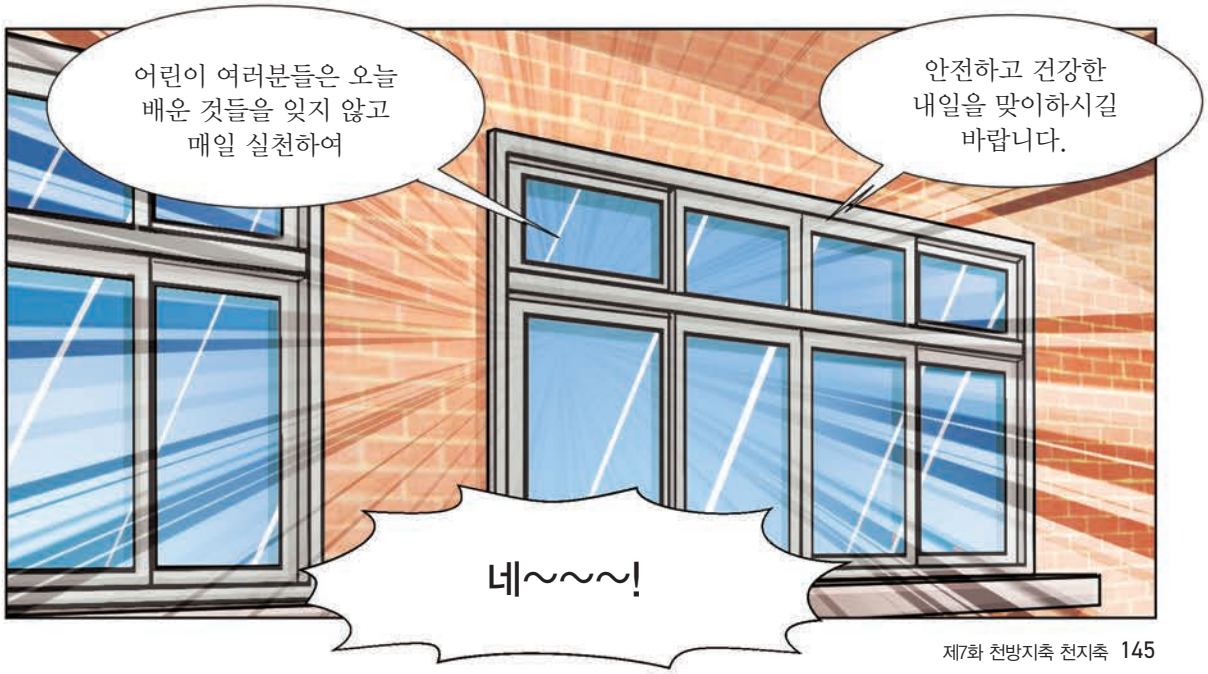

녹색불이라고
무조건 건너면
절대로 안돼요.


다섯 번째, 건너는 동안 차를 계속 보며 천천히 건너갑니다.


여러분,
잘 알았죠?
네~!
뭐야,
무지 쉽잖아.


별것
아니네.
별것 아닌데
경찰관까지 와서
교육하겠냐?


그래요, 이 쉬운 것을
지키지 않아
많은 친구들이
다친답니다.


어린이 여러분들은 오늘
배운 것들을 잊지 않고
매일 실천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내일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축이도 오늘 횡단보도를 건너는 걸 배웠겠지?
응! 엄청 집중해서 배우더라고.
바로미 넌 지축이가 보여? 사고 이후 지축이가 학원을 그만둬서 얼굴 보기 힘들더라고.
흐흐, 내 초능력을 모르냐? 지축이도 사고 이후 많이 달라졌어.
나리 누나! 똘이 형!
엥? 지축이?
오랜만이야. 호랑이도 제말하면 온다더니.
뭔 호랑이?
지축아! 깁스도 풀었네. 축하해.
고마워, 나리 누나. 이젠 날아갈 것 같아.


교통안전수업 들었지? 앞으로 조심해야 해.
법적으로 손해 배상을 받았어도 네가 다쳐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
응, 고마워. 누나~
나도 이번 일로 많이 배웠어.
!
저, 저 녀석이 또!!
참아, 애잖아. 그냥 어리광이라구.
누나, 그래서 말인데…
응.
소근소근
지축인 누나가 그렇게 좋아?
응, 하늘만큼! 땅만큼!
자! 그럼 여기에~
누나, 사랑해. 나와 결혼해줘.
꼭
크악! 더 이상은 못 참아!

제7화 심화학습

우리의 안전, 지켜지고 있나요?

7화의 '천방지축 천지축'의 이야기는 실제 대법원 판례들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우선 첫 번째 원장 선생님과 관련된 사건은 2008년에 선고된 사건으로 학원에서 피아노와 주산 교습을 받는 초등학교 1학년생이 쉬는 시간에 학원 밖으로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건이에요. 원장 선생님이 보호 · 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랍니다.

또 두 번째 나급행 아저씨와 관련된 사건은 2009년에 선고된 사건으로 횡단보도의 녹색불이 깜빡이고 있는 상태에서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급하게 건너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힌 사건이에요. 도로교통법 규정 취지를 고려하여 녹색불이 깜빡이고 있는 동안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모든 보행자는 보행자 보호의무 대상이 된다고 보아 운전자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랍니다.

두 사건 모두 여러분의 안전에 관련된 판례로서 여러분의 안전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판례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여러분이 안전할 수 있도록 스스로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하는 것 잊지마세요~!!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40437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9598 판결]



세림이 법을 아시나요?

2013년 3월 청주의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3살 세림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바로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세림이법이죠.

세림이 법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해마다 반복되는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의 주요 원인은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이 차지하고 있고, 어린이 사망사고의 대부분이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승 · 하차 시 안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등 안전불감증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 여러분이 타는 통학버스는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의무화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어린이 통학차량에 보호자 반드시 동승
(위반 시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출발 전 안전띠 착용과
어린이 도착 확인 후 출발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통학차량 운전자,
운영자 모두 안전교육 수료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 8 화

용맹한 용맹 이씨의 딸




외가의 조상님은 네 조상님이 아니니?
자부심을 가져라, 딸아. 네 핏속엔 용맹 이씨 가문의 용맹한 DNA도 흐르고 있어.
저쪽에 있는 사당에 용맹 이씨 조상님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거예요?
정확히는 우리 용맹 이씨 사도공파의 조상님들이지.
우리 가문은 대대로 애국심과 용맹함으로 이름을 펼친 진정한 명문가란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두 전쟁에도 나가서 싸워 공을 세웠고, 조선 말기에도 의병을 일으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썼지.
오오~!!


엄마는 사당에 오면 특히나 기운이 넘치시는 것 같아요.
호호, 그래?
이 곳에 오면 나 자신… 이순영이 생생히 느껴지고 발밑이 든든해지는 기분이 들거든. 신기하지?
너희끼리 구경하고 있어. 난 서고에서 고문서들 좀 읽어봐야겠어.
고문서는 왜요?
가문의 역사책인 종사보감을 집필하는 편찬위원에 임명됐어. 그래서 자료조사 좀 하려고.
무지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프지만 어쩌겠어. 믿고 맡기신거니 열심히 할 수 밖에.
후훗, 말씀은 저렇게 하시지만 얼마나 이 일을 좋아하시는지 몰라.


나리 엄마는 가문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크신 것 같아.
응, 그래서 종중의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석하셔.
종중이 뭐야?
같은 조상의 후손들이 모인 단체야.
이곳에서 조상들의 묘를 돌보고 제사도 지내. 또 후손들이 모여 친목을 다지기도 하고.
저곳은 사당이야.
바로미, 나리 말 들었지? 이렇게 야무지고 똑똑하다니까.
들었다, 이 팔불출아.
그런데 엄마가 종중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셔도
종중의 회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계셔서 안타까워.
엥? 너희 엄마도 용맹 이씨인데 왜 인정 못 받아?
엄마는 여자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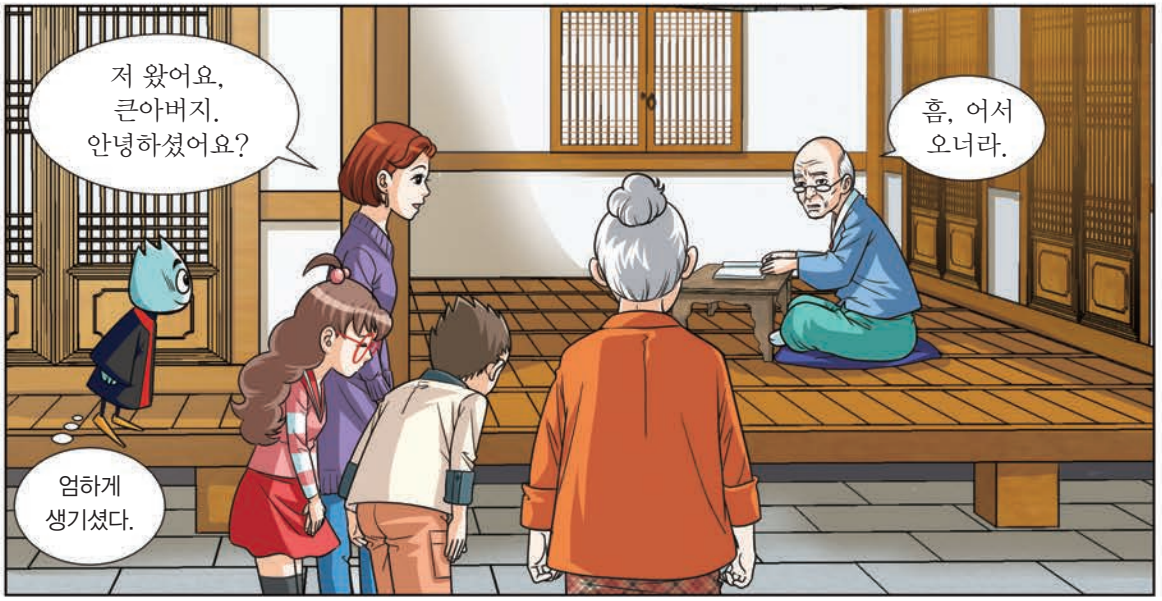

그래서?
다른 이유는 없어. 그저 여자라서 종중 회원이 될 수 없는 거야.
마, 말도 안돼. 목성에 우주선도 보내고 있는 21세기에
아직도 그런 꽉 막힌 생각을 하고 있다니.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너희 엄마는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종중의 일을 맡아 하고 계신데 너무하잖아.
응, 다들 너무해.
어머, 나리 아니니? 언제 여기 왔어?
?


큰할머니, 안녕하세요? 엄마랑 같이 왔는데 엄마는 지금 서고에 계세요.
집으로 먼저 올 것이지. 왜 사당에 와 있어? 너 올 줄 알았으면 맛난 거라도 만들어 놨을텐데.
엄마가 큰할아버지께 먼저 연락을 드렸었는데.
큰할아버지께서 오늘 바쁘다고 하셔서요.
그, 그랬어? 아휴, 은퇴한지 20년도 넘은 노인이 바쁠 게 뭐가 있다고.
큰할머니, 얘는 제 친구 한똘이에요. 같이 놀러왔어요.
똘아, 인사해. 우리 큰할머니셔. 정확히는 우리 외할아버지의 사촌형수님. 용맹 이씨 집안의 종부님이시지.
오, 그래. 잘 왔다.
크크, 난 소개 안해?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나리의 남자친구인 한똘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꾸벅
호호호, 재밌는 아이구나.
한똘, 이 무서운 녀석.


할머니 집에 같이 가자꾸나. 바로 옆에 있단다.
600년 전통의 종갓집 요리를 맛보여주마.


용맹 이씨 종가


저 왔어요, 큰아버지. 안녕하셨어요?
흠, 어서 오너라.
엄하게 생기셨다.


네 동생 강남인?
강남이는 안왔어요. 그녀석 요즘 사업이다 뭐다 하면서 바쁘더라고요.
출가외인이 친정에 자주 드나드는 거 아니다.
게다가 신씨 성인 네 딸에 딸내미 남자친구까지 데려오다니... 쯧쯧.
호호! 큰아버지도 참~!!!
참! 큰아버지, 저희 나리가 학생회장에 뽑혔답니다. 대단하죠?
!
여자가 똑똑해 봤자 쓸데없는 짓만 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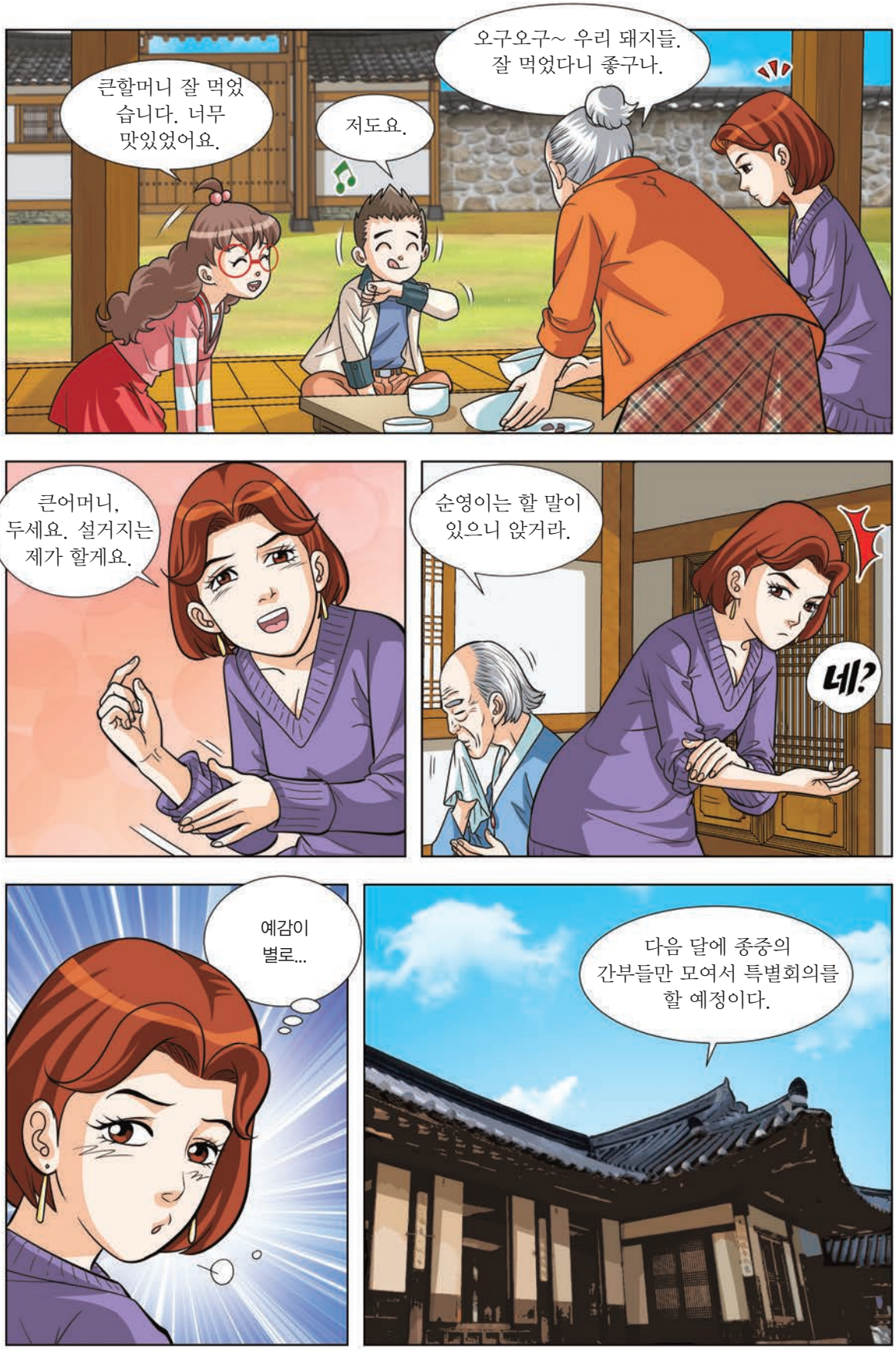

헉!
포, 폭발하기 일보 직전!
?
참자!
뿌욱
분노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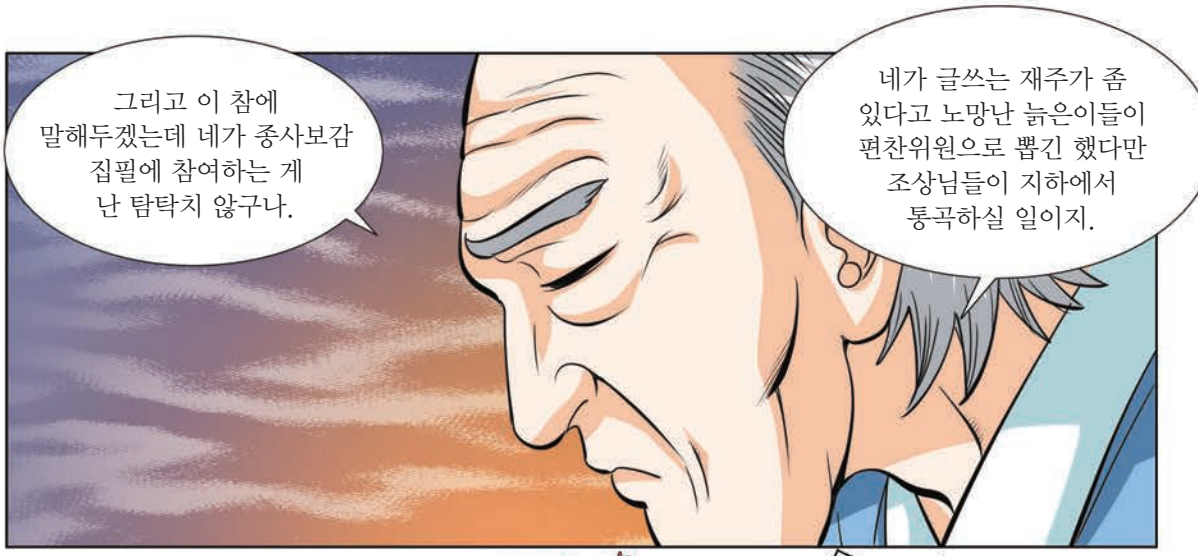

우왕! 맛나다, 맛나!
이것이야말로 600년 전통의 저력!


너무 맛있어서 할아버님만 아니면 춤을 추면서 먹었을텐데...
할아버님이 안 계셔도 춤추면서 밥 먹는 일은 하지마.


헛흠~ 임자. 상 내가시오.
!


오구오구~ 우리 돼지들. 잘 먹었다니 좋구나.
큰할머니 잘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저도요.
큰어머니, 두세요.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순영이는 할 말이 있으니 앉거라.
네?
예감이 별로...
다음 달에 종중의 간부들만 모여서 특별회의를 할 예정이다.


특별회의요?
중시조 어르신에 대한 특별전시회를 열자는 제의가 들어왔다. 그에 관해 지역단체장분들을 초청해서 회의를 할거야.
어머, 정말 좋은 일이네요.
중요한 자리니 강남이에게 꼭 참석하라고 전해라.
그날 회의록 작성은 강남이에게 맡기마.
네? 이제껏 회의록은 제가 써왔잖아요.
중요한 자리에 종중 회원도 아닌 네가 어딜 끼어들려고 그래? 남들이 보면 웃는다.
정 참석하고 싶으면 와서 청소나 하고 음식이나 해라.
부글
부글
쑤욱
분노지수


그리고 이 참에 말해두겠는데 네가 종사보감 집필에 참여하는 게 난 탐탁치 않구나.
네가 글쓰는 재주가 좀 있다고 노망난 늙은이들이 편찬위원으로 뽑긴 했다만 조상님들이 지하에서 통곡하실 일이지.


기어코 그 일을 네가 하겠다면 집필자 이름을 네 동생 강남이로 올려라. 여자가 썼다고 하면 누가 읽겠냐?
딱


큰아버지!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무슨 일이지?
엄마가 결국 폭발하셨어.


20년간 제가 종중의 일에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줄 아세요?
음식과 제기준비, 문서작성에 회계일까지 제가 다 도와드렸다고요.


그런데 아직도 음식만 준비해주는 사람으로 취급하시는 군요!
네가 좋아서 한 일이면서 뭐가 그리 억울하냐? 정 억울하면 앞으로 종중의 일에서 손을 떼거라.
너무해, 엄마를 이렇게까지 무시하시다니.
좀 심하네.
큰아버지 생각이 그러시다면… 좋아요.
흥! 내 말을 듣겠다는 거냐?
아뇨, 절 부르시든 말든 다음 종중 회의에 참석하겠어요.
뭐?
그리고 여자도 종중 회원으로 받아들이도록 건의하겠어요. 그날 뵐게요.


뭐, 뭐, 뭣이라?
오늘이 바로 종중 회의 날이잖아.
엄마가 걱정돼서 어지러운 것도 모르겠어.
나, 나리야. 안 어지럽니? 아까부터 같은 자리만 맴돌고 있어.
분명 큰할아버님과 같이 보수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잔뜩 모일텐데…
큰할아버지, 엄청 보수적이긴 하셨지.
여자는 출가외인이야.
출가외인은 무슨!!


우리 집은 엄마가 외할아버지를 보살피시고 제사까지 모두 책임지신다고!
세상에 이런 출가외인이 어디 있어?
나리가 망가진다.
친척 할아버지들은 남자라는 이유로 외삼촌만 챙기시고 엄마는 일꾼 취급만 하신다고.
오늘도 어떤 수모를 당하실지...
나리야.
너희 엄만 여장부 시잖아. 잘하실거야.
그래도...
초능력으로 몰래 가서 보고 올까?
정말?
좋은 생각이야.
그럼 서두르자!
종중 회의가 곧 시작될거야.
우왓!


으아아아아
살려줘!
바로미!
어서오세요
용맹이씨 종중 회의
날짜:O월 O일 장소:용맹이씨 재실
아휴, 당숙어르신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어서오세요.
회장님, 안에
군수님께서
먼저 와 계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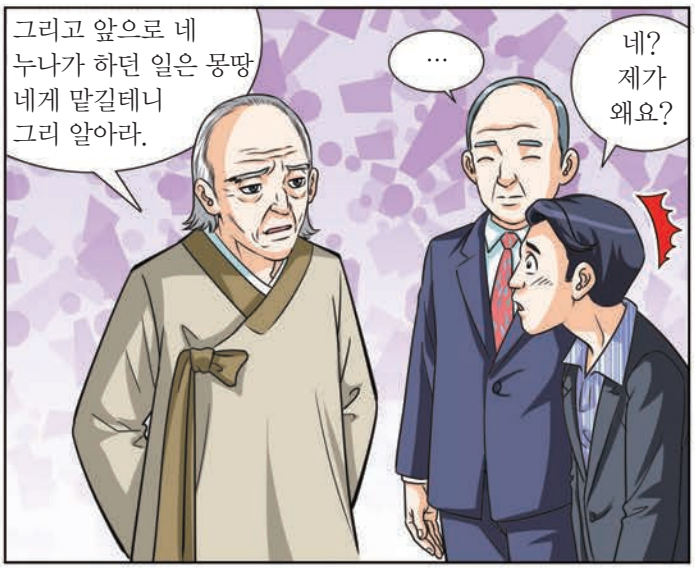

회의 끝나면 모두 바로 드실 수 있게 해야 한다.
네…


어라? 아줌마께서 얌전히 음식 준비를 하고 계신걸?
이곳에 외할아버지와 외삼촌도 와 계셔.


저기 계신다.


강남아, 네 얼굴 보기 너무 힘들구나. 집안일에 신경 좀 쓰거라.
아, 네…


귀찮아, 그래도 우리 종중은 규모가 제법 크니 재산도 많겠지?
어떻게 내 사업 자금으로 좀 얻어 쓸 순 없나?


그리고 앞으로 네 누나가 하던 일은 몽땅 네게 맡길테니 그리 알아라.
…
네? 제가 왜요?


네가 남자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네 누나가 중구난방으로
날뛰는 것 아니겠냐? 난 더이상 그 꼴 못본다.


으아, 성가시게 되었네. 누나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자네! 오늘 순영이가 쓸데없는 말 안하도록 잘 단속하게.
네, 형님.


자네가 옛날부터 딸내미를 데리고 종중 회의에 드나들 때부터 난 못마땅했어.
결국 순영이가 남녀의 역할 구분도 못하는 철없는 사람이 되지 않았나?


허허, 우리 순영이가 워낙 예쁘고 똑똑해서 제가 이곳저곳에 많이 데리고 다니긴 했죠.
자네, 내 말을 듣고 있기는 한 건가?!


걱정마세요. 순영이가 오늘 쓸데없는 말은 안하기로 저와 약속했습니다.


커흠, 자네 말만 믿겠네. 오늘은 중요한 날이라는 것을 명심하게.
네, 형님.
외할아버지께서 큰할아버지 편을 들다니!


충격이야, 평소엔 자랑스러운 딸이라며 엄마를 그렇게 칭찬하셨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많으시니 고리타분한 생각을 갖고 계신가봐.
앗!
앗! 종중 희의가 드디어 시작되나 봐.


오늘은 중시조 어르신의 특별전시회에 관해 의논하기 위해 모인 자리입니다.
특별히 참석해주신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야말로 명문가의 종중 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 곳은 전통이 살아있는 멋진 곳이네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귀찮아.
귀찮아.
꼬벅
꼬벅
엄마.
……
… 그럼 이상으로 용맹 이씨 사도공파 종중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식사 준비가 되어 있으니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잠깐만요.


제가 의견 한 가지 제시해도 되겠습니까?
?
저 애가 설마!
그동안 종중 어르신들께선 저를 보아서 잘 아실겁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여자 형제들이 용맹 이씨 종중에 헌신을 해왔지만 종중 회원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엄마, 힘내세요!
아줌마! 힘내세요!
이제 앞으로 여자들도 종중의 정식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또한 종중의 정식 직책도 받고 말입니다.
..!
저, 저런!


수, 순영이 너 이게 무슨 망신스러운 짓이냐?!
자네 순영이가 쓸데없는 말 안하도록 약속받았다고 하지 않았나!
네, 그래서 우리 순영이가 쓸데있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님. 허허~
들었지? 역시 외할아버진 엄마 편이셨어.
네 큰할아버지 좀 봐. 단단히 뿔나셨어.
지금 무슨 소릴 하는 게냐?
여자가 종중 회원이 되는 법이 어디 있어?


그럼 여성이 종중의 회원이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종중규약 제3조에는 "본회는 용맹 이씨 사도공의 후손으로서 성년이 되면 회원 자격을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년이라는 말만 있지 남녀의 구별이 없습니다.
어허~
게다가 시대가 바뀌어서 남녀 모두 평등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여전히 여자가 회원이 될 수 없다는 게 좀 시대착오적이지 않습니까?
애쓴다.
외할아버지 너무 멋지셔. 역시!
나리야, 나도 평소에 저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
종중이 남자 회원만을 받는 것이 가문의 전통이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전통이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지켜야 할 '가치'라는 것이 있어!
옳소!
...!


여자들을 종중의 회원으로 받아 그들에게도 가문의 권리를 내준다면 다른 성씨를 가진 그 가족들에게까지 혜택이 간다!
결국 우리 살을 깎아 남의 집안을 흥하게 하는 일이 돼! 그래서 여자는 출가외인이라고 하는게야!
이제는 딸도 집안의 대를 잇는 것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큰아버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그 꼴은 못 본다!
두 분 다 그만하십시오! 손님들이 계신 자리에서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군수님, 못 볼 꼴을 보여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외부인이지만 저로서도 꽤 관심이 가는 토론이군요.
특별전시회만큼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남녀평등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화두입니다.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 제게도 어려운 숙제지요.
전통을 따르는 관습과 새로 변화된 가치관이 부딪쳤을 때, 어떤 해결책이 나올지 저도 궁금합니다.
역시!
오옹~ 군수님! 굿~! 굿~!
넝
넝
종중 회장님께선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하군요.
어… 저… 저 말입니까?


흠! 흠! 이 문제는 간단히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 왜냐하면 우리 용맹 이씨는 지금까지 성년의 남자만 회원이었던 것이 관습이고,
그… 여자들은 시집을 가면 출가외인인데다…
저는 용맹 이씨 종중을 위해 일했으며 앞으로도 많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여성이 친정의 일에 관여하지 못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 그렇긴 하지만…
뭐하나, 끝내!
이것으로 종중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 문제는 다음 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게 낫겠습니다.
……
엥? 끄… 끝?!
그럼 다음 회의는 언제쯤 열리는 건가요?


중요한 문제인만큼 천천히 깊이 생각해보고 결정해야지.
성급히 결론을 내리려 하면 안돼.
회의 끝났으니 음식이나 챙겨오너라.
허허, 송구합니다. 군수님.
허허, 뭘요.
어려운 일인만큼 길게 회의를 해서라도 결론을 내려야지, 이렇게 얼렁뚱땅 끝내다니!
오랜 관습으로 내려오던 일이 쉽게 바꾸어질까? 불안해.
오늘은 다른 목적으로 열린 특별회의였으니 이정도로 만족해야지.
자! 우린 이제 돌아가자!
무슨 소리야! 우리도 먹고 가야지!
배고프단 말이야!
집에 가서 먹어!
으아아아아.
후
웅


그 후 종중 지역 회장 회의에서 어르신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오늘 임시회의 결과 여성의 종중회의 가입을
!
앞으로도 쭈~~우욱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안돼요, 아버지!
당사자인 여성들을 빼놓고 한 회의에서 여성들을 차별하는 결론을 내리다니요.
저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나도 이번 회의 결과에 큰 실망이다.
생각이 바뀌려면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다. 좀 더 기다려보자꾸나.
아니요! 절 인정해 주길 20년간 기다려 왔어요.
더는 못 기다려요.


제가 과연 종중 회원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법원에 가서 묻겠어요.
버, 법원?!
역시 우리 엄마셔. 소송을 내실 지 상상도 못했어.
정말 대단하시다.
그런데 수백 년 전부터 남자들만 종중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전통이었잖아.
전통은 좀 불편한 점이 있어도 지켜야 하지 않을까?
뭐?
똘이 네가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몰랐어, 실망이야.
아, 아니. 그냥 너희 외가집의 사당에 갔던 일이 문득 생각나서 그랬어.


사당도 옛것인데 엄청 멋있었잖아.
종중도 사당도 다 전통이니까.
아니, 이 닭살 커플에 드디어 위기가?
에구, 똘아. 내가 구해줄게.
얘들아, 우선 전통과 관습에 대해 명확히 알아야 해.
우리는 헌법으로 전통을 보호하고 있지.
헌법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과거에 존재했었다고 무조건 전통이 되는 것은 아니야.
전통이란, 과거와 현재를 다 포함하는 문화적인 개념이야.
과거와 현재를 포함한다고?


현재 시대의 사회, 경제 환경 등에도 맞고 또 오늘날에 있어서도
보편타당하다고 여겨지는 전통윤리 내지는 도덕관념이 전통문화라고 할 수 있어.
남녀 차별적인 종중 규약은 전통이라 할 순 없겠구나.


그리고 전통과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관습'이 있어.
전통이나 관습이나 그게 그거 같은데.


관습은 오랫동안 그 사회에서 지켜내려와 그 사회구성원들이 널리 인정하고 있는 질서나 풍습이야.


그 관습이 생활 속에서 거듭되고 거듭되어 법처럼 굳어지면 '관습법'으로 인정돼.
관습법은 법을 보충하는 역할을 할 정도로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지.
민법 제 1조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 조리: 도리, 사회통념 등


남자만 중종 가입이 되는 건 관습법인 거구나.
관습법이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면 더더욱 엄마에게 불리하지 않을까?
관습법은 사회 구성원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냐 아니냐도 중요하다잖아.
윽!
난 엄마가 이기시리라 믿어.
엄마는 잘못된 것은 반드시 바로 잡는 용맹 이씨의 진정한 후손이거든.
마침내 용맹 이씨 사도공파 종회를 상대로 여성에게 회원 자격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사재판이 열렸다.


고약한 것!
억지를 쓰다쓰다
종중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시집을 갔으면
시댁의 일이나
신경쓸 것이지.
종중 재산을
신씨 집안으로
빼돌리려는 수작
아니야?


여자가 똑똑해봤자 역시
분란만 일으킨다니깐.
……
엥?
굼적 굼적
가시 방석이네.


나리 껌딱지가 웬일로
떨어져 앉았어?
저번에 이야기한
후로 나리의 화가
아직 안 풀렸어.


하하, 나리야.
알라뷰~


판사님 입장하십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원고 이순영은 사도공의 후손으로서
피고 종중에게 종중의 회원임을
인정해 주실 것을 청합니다.
피고석
원고석


남성만 종중 회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개인의 존엄과
원고석
양성의 평등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도 위반되는 일입니다.
이 사건은 양성평등과 무관한 사건입니다. 종중의 본 목적이 무엇입니까?
피고석
제사와 묘지를 돌보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관습상 대를 잇고 제사의 의무가 있는 남자들만을 회원으로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
원고는 제사뿐만 아니라 종중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습니다.
반면, 종중의 일에 의욕이 없는 남자 형제는 자동으로 종중원이 되었지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꾸벅 꾸벅
……


대부분의 혼인한 여성들은 종중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고 또한 종중의 일보다 시댁의 일에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혼인한 여성들이 종중의 일에 나서지 않는 것은
종중원의 자격을 주지 않는 데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여성도 종중 회원으로 인정한다면 많은 여성들이 종중의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법원
가정제도의 관습상, 결혼한 여성들은 시댁의 종중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들의 변론 외에 참고인으로 전통문화연구인, 대학교수 등 전문지식인들이 나와 종중 규약에 대해 진술하였다.


양쪽 모두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했네. 재판을 여러번 방청했었지만 오늘의 재판은 또 느낌이 달라.
그렇지? 나리야.
관습과 변화. 둘 중에 과연 어떤 것이 결정될까?
얘들 심각하네.
엄마, 힘내세요!
똘아, 재판에나 집중해.
크윽. 눈길 한번 안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평생 솔로인 내가 커플의 사정을 어떻게 알겠니?
!
판결하겠습니다.
!!


그동안 관습법상 여성은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녀평등 의식이 확산된 지금, 여성의 역할이 늘어났고, 가족제도 역시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전체의 법질서는 앞으로 남녀평등의 원칙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여성을 종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관습법은 우리 전체의 법질서와도 맞지 않아 더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회장님?
일단... 끝까지 들어보세.
같은 선조 아래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없이 성인이 되면
아버지!
당연히 종중의 회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순영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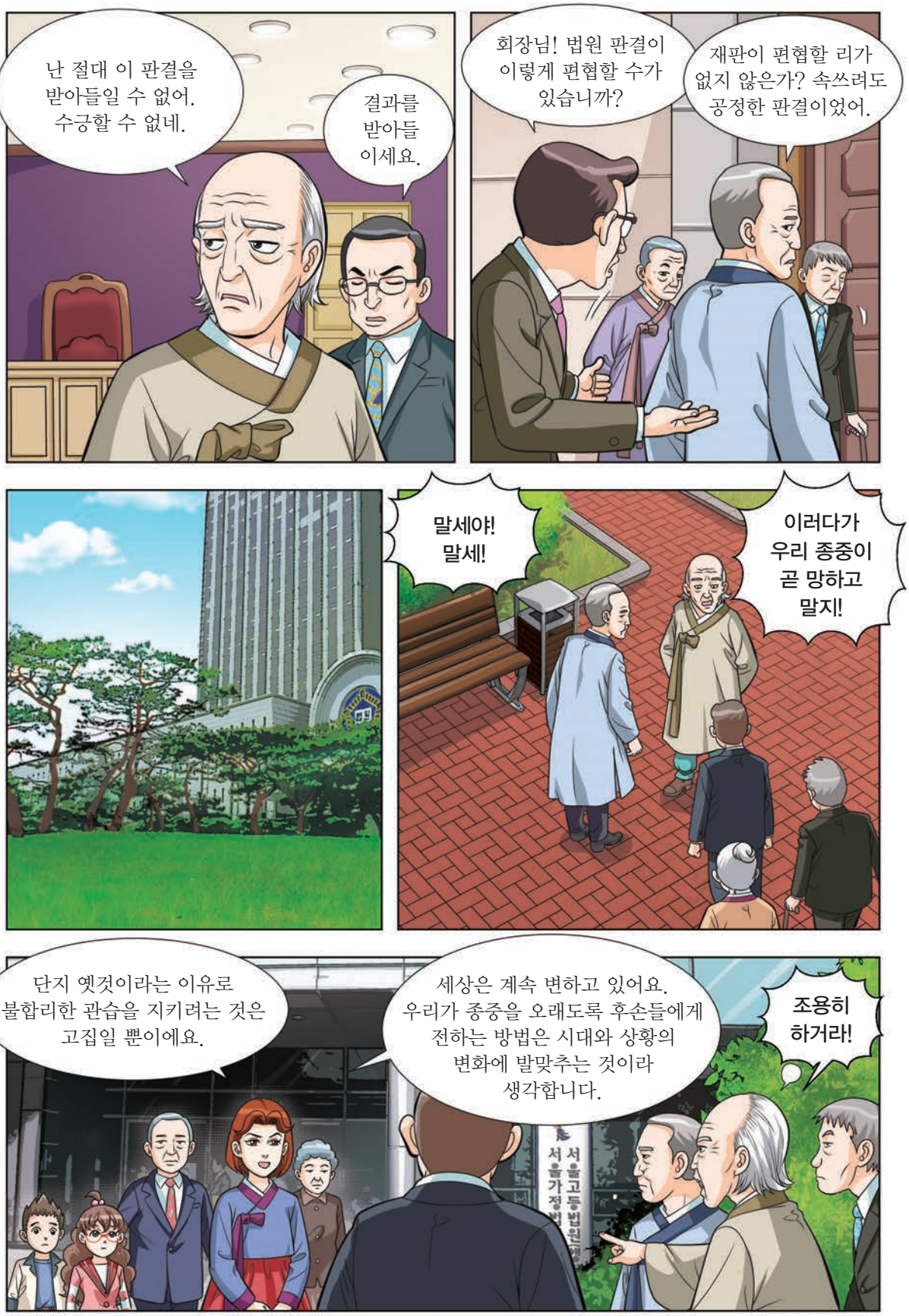

따라서 원고는 피고 용맹 이씨 사도공파 종중 공동선조의 후손으로서 성인이므로
피고 종중의 구성원임을 확인합니다.


꺄악~ 어떡해!
우힛!


너무 좋아!
얘, 얘들이!


아버지! 제가 드디어 정식으로 종중 회원이 됐어요.
그래, 네가 마침내 해냈구나!


이런 판결은 말도 안돼!
뭔가 잘못된 게 틀림없어!


난 절대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 수긍할 수 없네.
결과를 받아들이세요.
회장님! 법원 판결이 이렇게 편협할 수가 있습니까?
재판이 편협할 리가 없지 않은가? 속쓰려도 공정한 판결이었어.
말세야! 말세!
이러다가 우리 종중이 곧 망하고 말지!
단지 옛것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한 관습을 지키려는 것은 고집일 뿐이에요.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어요. 우리가 종중을 오래도록 후손들에게 전하는 방법은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발맞추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용히 하거라!
서울고등법원
서울가정법


아무리 그래도 남자는 남자의 일이, 여자는 여자의 일이 있는게야!
고집쟁이!
영감탱이 고집 좀 그만 부려요. 내가 없으면 혼자 틀니도 못 찾으면서 무슨 남자의 일 타령이에요?
저, 저 사람이!!
난 잘 모르겠지만 전통은 지금도 만들어지는 중이라 생각해요.
오늘의 이 판결 결과는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이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지키는 전통이 될 수 있다구요.
……
순영아, 축하한다. 오늘 재판 보고 내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더구나.
고맙습니다, 큰어머니.
!


호호, 우리 손주 사위도 오늘 좋은 체험 했구나.
할머니, 멋져요.
소, 손주 사위?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저는 나리의 남자친구이자 장래 남편이 될 한똘이라 합니다.
호호.
으아아~ 왜 부끄러움은 내 몫이란 말이냐!
세상 참... 국민학생이 연애를 다하고...
초등학생이에요. 학교 명칭이 바뀐 지가 언젠데...
허... 시대가 변하긴 변한건가?


걱정마세요, 큰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잘해오긴 했지만
앞으로는 더 잘할게요.
헛흠! 필요없다!
큰아버지,
같이 가요.
종중의 신입회원
신고식 겸해서
식사 대접할게요.
순영이가
밥을 산다고 하네요.
필요
없다고!
형님, 배고픕
니다. 식사는
하셔야지요.
나리야, 너희 엄마
진짜 강하시다.
응, 나도 엄마처럼 멋진
여자가 되고 싶어.
오늘 판결은 용맹 이씨 가문
뿐만 아니라 다른 종중들에게도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어.


앞으로 법질서는 남녀평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판사님의 말씀이 인상적이었어.
좀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법과 재판도 꾸준히 변화하며 노력한다는 거겠지?
!
똘이와 나리 역시 하루하루 발전하며 변화하는 게 눈에 보여.
미래가 기대되는 친구들이야.
나리야, 똘아! 얼른 안오고 뭐해?
어서 가자! 나 배고파.
나도.



제8화 심화학습

모두가 차별없는 행복한 세상을 꿈꾸어요.

8화의 '용맹한 용맹 이씨의 딸' 이야기는 실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하고 있어요. 종중에서는 전통적으로 같은 조상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조상들의 묘를 보호하고 제사를 지내거나 서로 친목을 다지는데, 예전에는 성년의 남자만 종중 회원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었지요.

그러나 우리의 법질서는 양성 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생활을 보장하고 남녀 차별을 없애기 위한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그런 변화를 반영하여 판결을 내리게 되었답니다.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판결]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남녀 모두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지요? 아래에는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 벌어지는 여러 종류의 차별 사례들입니다. 사례를 읽고, 해당되는 차별의 종류를 〈보기〉에서 찾아 적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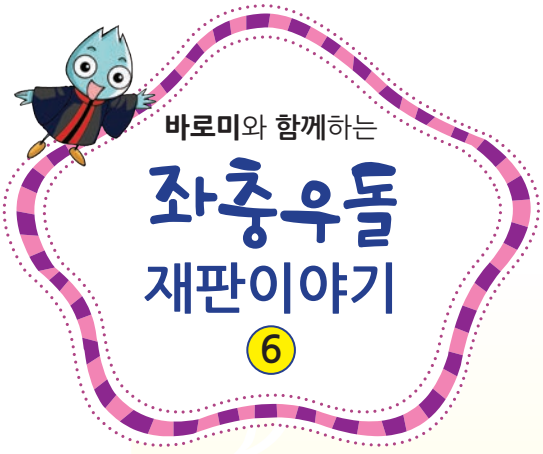
	□□ 회사는 같은 일을 하는 남자 직원의 월급을 여자 직원보다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남자 직원이 더 힘든 일을 해서라고 합니다.
정 답 ( ) 차별	
	☆☆ 회사는 직원들을 뽑을 때 하는 일에 상관없이 무조건 키와 몸무게가 일정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의 지원만 받고 있습니다.
정 답 ( ) 차별	
	△△는 전학 온 친구인데 우리와 피부색이 다릅니다. ○○는 같은 반 친구인 △△와 친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 부모님은 ○○에게 피부색이 다른 친구와 놀지 말라고 하십니다.
정 답 ( ) 차별	
보 기	**사회적 신분 종교 성별 인종 외모**

평등권

헌법 제11조 제1항을 살펴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하여 모든 인간은 차별없이 평등한 존재로 대우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우하는 마음을 가지고 실천한다면, 이 세상은 좀 더 차별없는 공평한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8화의 이야기처럼 우리 주변의 불평등한 사례가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 봅시다.





글 | 서울교육대학교 법과인권교육연구소
그림 | 극동만화연구소

1판 1쇄 | 2017년 02월 21일
개정판 1쇄 | 2024년 10월 ??일

펴낸 곳 | **사법발전재단**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번지 (06590)
02)3480-1309
대법원 홈페이지 | http://www.scourt.go.kr/ (사법발전재단)
디자인·인쇄 | 홍디자인 02)464-5167
연구·개발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02)3480-1262

정가 9,000원

ISBN ???
??? (세트)

* 이 책의 내용을 사용하시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이 책은 대법원 홈페이지의 어린이마당 법교육교재 코너
(http://www.scourt.go.kr/kids/edu/edubook/index.html)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